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4 5



VOL. 215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help (021) 5699-7777 (business)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id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205	0705 ⁺	매일
	KE626	0750	1655	월,목,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 ⁺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2014년 5월부터 추가 30만 족 개파 증설
향후 파크랜드 1,2 사업부 월생산200만 족 예정



1사업부

- 총 면적: 약 17헥타르 (건물 약 9헥타르)
- 생산 라인: 41개 제조라인 (120만족/월)
- 종업원 수: 10,800명 (한국관리자 22명)

adidas
GROUP



- 전세계 오디: 2억 4천만 족
- 인도네시아: 약 6천 3백만 족 (26%)
- 총 수출국가: 30 개국
- 연간 생산량: 1천 5백만 족



- 전세계 오디: 7천 2백만 족
- 인도네시아: 약 1천 5백만 족 (21%)
- 총 수출국가: 18 개국
- 연간 생산량: 5백 5십만 족



2사업부

- 총 면적: 약 13헥타르 (건물 약 5헥타르)
- 생산 라인: 18개 제조라인 (50만족/월)
- 종업원 수: 4,200명 (한국관리자 15명)

“관심을 집중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지식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한다”

~ Since 1980



MUGUNGHWA
무궁화 유통

KOREAN SUPERMARKET & DISTRIBUTOR



무궁화 유통은 지난 34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의 경주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50개 브랜드 10,000여 상품을 인도네시아 전역 4,000 여개 유통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유통은 인도네시아 최대의 ML(제품별 수입식품허가) 보유 업체로서 각종 박람회와 문화 행사 주관, 6개 직영점들을 비롯한 각 유통망 별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한국 제품의 성공적인 인니 진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유통은 고객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심장병 어린이 수술돕기(50회), 한센병 나환자촌 방문 활동, 수재민 돕기 및 지속적인 불우이웃 돕기 활동...등을 통해 사회환원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KBS글로벌 성공시대-110회 김우재 회장편'을 시청하시면 무궁화 유통과 세계한인무역협회 김우재 회장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례..... 6

이모저모 한인사회..... 8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재해의연품 적십자사에
전달

김영선대사 이임식

북한 인권주간 행사

해외 동포 정체성찾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글로벌CEO과정협약체결

CSR 책자 발간

KOICA, IT 행정역량 강화 사업

반동지역 상수도 시스템

빨렘방 배수시설



Pulau Pari에서 만난 아이들
사진:엄중한 편집위원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doodle

사고가 난 후
잔상을 보는 눈과 마음은
몹시 불편합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문화,
현장주의 시스템의 부재로 놓친 시간들,
속보경쟁에서 저버린 언론윤리...
모두가 침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이라는 외상 후
사회 전반의 불신으로만 번져나가지않고
스스로를 재정비하여
바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Be Korean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포토뉴스	
KOREAN CULTURE DAY 2014	문화탐방기 <김현미>.....46
KOWIN 한인여성 비즈니스 엑스포	
K FESTIVAL 2014	행복에세이 <서미숙>.....50
2014 세계한민족 축전	
땅그랑 반튼 한인회 소식	Jalan-Jalan Jakarta/대통령박물관
롯데, 장학금수여	<사공경>.....52
제4회 국제 사생대회	
WINDOW OF K-ART PREVIEW	인도네시아 약용식물
2014 그림사랑 작품발표회	(인도네시아 약용식물과 생물자원전쟁)
풍경과 사람<엄중환>	<백진협>.....56
JIKS 소식	
JIS 소식	우리 몸과 차,자연과 채식
	<채인숙>.....58
2014 4월의 월간 경제 브리핑.....36	재산세 <이승민>.....60
기업 탐방(인도네시아 KEB HANA BANK)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편집부>.....40	<허영순>.....64
정서와 기억<편집부>.....42	화 도 소66
내 마음의 뜰<시:이동균/그림:이태복>.....45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중환,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신기엽 한인회장의 인사말

존경하는 유습갈라 총재님 그리고 적십자 관계자, 언론사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재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정성 어린 구호품 전달식 행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한인 커뮤니티는 2,100여 회사가 진출하여 약 1백만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약 5만여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 중 가장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40년의 수교 역사이지만 이렇게까지 급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말 할 필요도 없이 귀정부 그리고 성실한 귀 근로자들의 정성어린 도움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우리 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모두는 이에 대해 항상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영토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국내에서 종종 홍수, 화산폭발, 지진 그리고 기타 사고 등으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소식들을 보

고 듣게 되는 일들은 이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한인회에서는 “더불어 사는 세상” 즉, 어려운 이웃을 내 가족같이 돌보자는 정신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한국 거주민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은 구호품들을 준비하여 이렇게 전달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정성어린 구호품들이 아무쪼록 귀 적십자사의 훌륭한 전달 채널을 통해 어려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상처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너무도 바쁘신 와중에 우리의 구호품 전달식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유습갈라 총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신의 가호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십자사본부에서 재해의연품 전달식

인도네시아 적십자사 본부에서 지난 25일, 주 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신기엽) 주관 기탁행사가 이뤄졌다.

이 행사에는 유습칼라 인도네시아 적십자사 총재와 신기엽 한인회장을 비롯하여 조규철 한인회수석부회장, 김희년 한인회부회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들과 한국 및 현지 언론사가 참여하였다.

이 행사는 연초 수재의연금 모금을 마치고 모인 성금 및 물품을 인도네시아 적십자사에 전달하였다.



PT. DONGSUNG JAKARTA(대표 김채유) 수재의연 물품 전달

한인회 신기엽 회장은 “넓은 영토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국내에서 종종 홍수 화산폭발, 지진 그리고 기타 사고 등으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소식들을 보고 듣게 되는 일들은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한다”며 “어려운 이웃을 내 가족같이 돌보자는 정신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한국거주민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은 구호품들을 준비하여 오늘 이렇게 전달식을 거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습칼라 총재는 “매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인도네시아 적십자사를 대표해서 한국의 세월호침몰사고의 희생자에 대해 애도를 표현했다. 우리의 정성어린 구호품들이 아무쪼록 우리 적십자사의 훌륭한 전달 채널을 통해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상처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신기엽 인도네시아한인회장 환송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선 대사님,
먼저 5만여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와 함께 지난 3년여 재임기간 동안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인동포들의 안전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신 대사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임하는 김영선 대사님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1년 3월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부임하면서 “대사관에 문턱은 없다” “다가가는 대사가 되겠다” 며 지난 3년 동안 특유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우리 한인사회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대사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대사님 재임기간 동안의 공적을 논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도 끝이 없겠지만 다음 몇 가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하며 대사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첫째, 2012년 초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으로 하청규제법이 발효되기 직전 대사님의 주도하에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을 설득시켜 우리 한인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봉제업체들의 줄도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 한인사회를 굳건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둘째, 대한항공 독점이던 인도네시아-한국 항공노선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 운항 증편으로 가루다, 아시아나 항공도 취항케 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한인동포들의 숙원을 풀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대사관을 신축 완공하여 우리 한인동포들에게 긍지를 심어 주시고 또한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40년사’ 를 발간하여 우리가 자긍심을 갖게 함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대사님이 보여 주신 열정과 철저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외 2013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 그 많은 행사를 철저한 준비와 소통으로 한인사회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화합하고 더욱 친숙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네시아에 일찍이 진출한 한인사회의 원로 분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도 수시로 소통하며 한인사회의 정체성 확립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셨음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대사님께서 본국의 부름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떠나시더라도 대사님께서 평소 말씀하신 “국민외교” “감성외교” 를 우리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우리 한인사회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대사님 내외분 언제 어디서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선 대사 이임식

4월 14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다목적홀에서 김영선 대사의 이임식이 진행됐다. 김영선 대사는 이임사에서 지난 3년간을 회고하며 “3년전 취임 시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략적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간 대사관과 우리동포가 같이 협력하여 이룬 결과이고 미래에 동반적인 발전으로 더 큰 수확이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대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국가의 힘을 바탕으로 동포들이 잘 해주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기여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한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정부는 물론, 동포사회와 우리기업들이 지혜롭게 일심 단결하여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모두

에게 감사를 드린다” 고 말하며 “재임 기간 3년이 보람차고 즐거움으로 기억되는 시간이었다” 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신기업 한인회장은 “김영선 대사님은 한인동포의 안전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



신기업회장은 김영선 대사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력하셨으며, 특유의 열정과 추진력을 발휘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 하청규제 법안통과로 봉제업체 줄 도산 위기를 막아 주었으며, 대한항공 독점 노선에 아시아나항공을 취항시켜 주었고, 숙원사업인 대사관 재건축, 한인니 수교 40년사 발행 등이 이루어 놓은 많은 일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환송사에서 밝혔다. 이날 김영선 대사 이임식에는 한인사회 각계각층에서 초청된 인사들이 참석해 이임을 아쉬워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북한인권주간 행사 개최

북한, 말을 빼앗긴 사람들을 위한 외침!

사 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4월 28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콘트라스(KontraS), 자카르타-동남아시아(South-East) 커뮤니티, 인니 국립과학원(LIPI)과 공동으로 북한인권주간 행사를 최초로 개최하여 ‘북한, 말을 빼앗긴 사람들을 위한 외침!’을 주제로 5일간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이끄는 주요국가이고,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오랫동안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 또는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 인도네시아에서 2차례 북한인권 캠페인을 벌인 경험을 토대로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을 보여주는 행사를 갖게 됐다.

4월 28일(월) 오후 6시 Cemara 6 Galeri에서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한국대사관, 한인회(회장 신기엽) 등 북한인권시민연합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림전시회, 세미나, 영화 상영과 함께 개막식이 열렸다.

이 전시회에서는 정치범수용소 생존자들, 북한의 예술가들,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각종 인권 침해에 대해 그린 작품이 전시됐다. 자리를 함께 한 탈북자 김혜숙씨와 김은주씨의 증언을 덧붙여 사실감을 더했다.

탈북시인 장진성의 시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와 ‘사형수’ 낭송으로 참석한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의 가슴을 적셨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하여 “북한의 주민들은 참혹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나 말할 자유가 없다”며 “북한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제사회가 북한 사람들이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부탁하였다.

신기엽 한인회장은 “탈북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찡하다”며 “한인사회도 북한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월29일에는 롯데 에비뉴 ICE PALACE 홀에서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 주관 탈북동포 초청강연이 있었다. 원재천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의 사회로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이 환영사에 이어 북한 인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탈북자 고백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를 감상했다. 출신성분으로 철저한 계급사회안에 갇힌 체 제18호 북창정치범용소에서 28년을 살아온 김혜숙 씨와 어린 시절 굶주림으로 탈북해 갖은 고생 후 한국으로 들어온 김은주 씨가 어제에 이어 그들의 경험을 대담형식으로 나누었다. 박동희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동포들이 귀한 통일의 메시지를 후대와 소통하며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 신기엽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무참히 침해당하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4월 30일(수)과 5월 1일(목) 양일 간 Cemara 6 Galeri에서 영화 ‘크로싱’ 상영하였다. 영화 ‘크로싱’은 실화에 근거한 내용으로 북한 함경도 탄

광마을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 특히 탈북난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북한인권주간 행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그 주변국들, NGO 관계자, 언론인, 학생 등에게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리고, 이것은 결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들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게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5월1일 자카르타 롯데에비뉴에서 UPH 한인학생들과 반동지역의 한사모회원 40여명이 북한인권개선 퍼포먼스를 공연했다.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사업 추진

28일, 경상북도는 경북의 정체성 찾기 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조사팀을 파견, 동포 면담과 현황 파악을 위해 한인회(회장 신기엽)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해양실�크로드를 따라 흐른 경북의 꿈'이라는 주제로 동포들의 이주역사, 삶의 애환, 실질적 경제 문화교류 등 동포사회 깊숙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어 재조명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축적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금년도 통상 분야 역점시책인 '해양 실�크로드 통상 바자르'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바이어 연결 등 수출촉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임을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자존과 세계 속의 경북인,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해외동포의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동포들의 정체성 확립과 실질적 교류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엽 한인회회장은 "인도네시아의 한인사회는 세계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한인회 방문을 환영해주었고, 인도네시아의 이민 역사, 문화, 교민 2세들의 생활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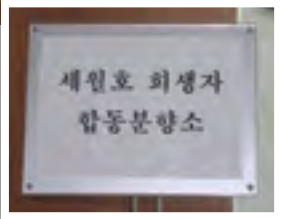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지역 중 동포사회가 형성돼 교류가 활발한 중국 광저우,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 뉴델리 등 4개 지역이다. 이 지역 동포들의 이주역사, 삶의 애환, 실질적 경제 문화교류 등을 재조명하고, 이들이 지킨 전통문화와 현장 등을 취재해 스토리 북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방영할 계획이다.



사랑해~ Pray for South Korea...

4월27일(토), 저녁 7시, Korea National Festival 행사를 마친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의 글로벌리더와 반동한사모 회원 등 약 100여 명은,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며 인니자총 글로벌리더 부대장인 Dewi양의 대표기도로 촛불 기도 집회를 가졌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의 물결...



4월28일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1층강당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연 첫 날,한인회 임원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있다,

- 2014. 4. 28(월) - 합동영결식(일정미정)까지
 - ※ 대사관내 설치된 분향소는 공휴일, 토.일요일도 운영합니다.
- 분향시간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7:00

긴급 동포 안내문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병풍도 해상인 맹골수도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 476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구조 174명, 사망·실종자 302명이라는 믿기지 않는 참사에 참담함과 애통함, 그리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마음도 몸도 부서지는 뼈아픈 슬픔으로 피 멎든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하며 불철주야 실종자 구조에 여념이 없는 구조대원들의 안전과 한마음으로 무사생환의 기적을 기다리는 한인 동포들의 간절한 바램을 모아 온정의 성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작은 나눔의 손길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동포와 동포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금 모금함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KEBI HANA	
계좌번호 계좌번호	USD A/C No.: 100-913-000537	USD A/C No.: 220 500 7893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모금기간	2014년 4월 23일 - 2014년 5월 17일 까지		



글로벌 CEO 과정 협약체결식

지난 4월21일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송창근, 이하 코참) 회의실에서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글로벌 CEO 과정 협약체결식이 있었다.

배우는 자세를 잃지않는 CEO, 기업의 창의성과 투자전략의 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한국적인 교감과 실질적인 경영관리의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오는 7월 초부터 2달에 걸쳐 6주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글로벌 CEO 과정’은 가치창출을 위한 재무관리, 변화지향 리더십,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방법,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등을 교육함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역량강화 및 전략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권석균 한국외대 경영대학원장은 “한국외국어대학 글로벌 CEO 전문과정은 글로벌 시장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교수진들로 헌신적인 운영자세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한다. 한인기업인들의 비즈니스적 시야를 넓히는 동시에 해외에서의 특수한 경험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의 기업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리더 그룹의 지적 공동체를 만들어 지적인 자극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송창근 코참회장은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므로 노사관계, 리더의 역량강화, 총체적 개념의 협업등 인도네시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이 글로벌 CEO 과정을 통해 공부하는 기업인의 진정성있는 리더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창근회장을 비롯 이강현 수석부회장, 이세호부회장, 안광진부회장, 홍중서사무총장과 외대경영대학원 권석균 원장, 마인어과 고영훈교수가 자리했다. 이 ‘글로벌 CEO 과정’은 코참의 한인기업지원의 열의와 한국외대 글로벌교육의 노하우가 결합되어 한인기업들의 경영관리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CSR 책자 발간

1. 주인도네시아대사관(대사 김영선)은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CSR 활동을 전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CSR 홍보 책자를 발간하였다.

2. 이번 책자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CSR 활동 가이드라인 및 모범 사례집”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CSR 활동, △주인도네시아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CSR 지원 방향,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CSR 활동 모범 사례, △우리 기업의 CSR 활동 추진 시사점 등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번 책자에서 우리 기업들이 CSR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과 현재 변화하고 있는 CSR에 대한 인식을 설명함은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효과가 높은 CSR 활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내 관련 동향 및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CSR 활동 모범 사례(17개사)를 소개하였다.

4. 또한,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CSR 활동을 위한 시사점으로 △CSR에 대한 인식 전환, △자사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needs 파악, △작은 것부터 실천, △직원들의 동참 독려, △전략적 접근, △기업 이미지에 맞는 한가지 메시지 어필, △지속적인 실천, △CSR 전담자 혹은 전담팀 배치, △정부/공공기관 및 NGO 활용 등 9가지 제언을 담고 있다.



5. 이번 책자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 CSR 동향 및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CSR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사회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CSR 활동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포일자 : 2014. 4. 21(월)

문의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차용기 서기관

(☎: 021-2967-2555)

KOICA, "IT 행정역량 강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4월 8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Gran Melia 호텔에서 'IT 행정역량 강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는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Basuki Yusuf Iskandar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 교육연구개발원장, Agung Nugroho 공공행정교육원(LAN) 역량강화협력과장, 양환준 (주)시스템위즈 사업수행기관 대표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총 370만 불을 투입하여 향후 2년간 추진하게 될 동 사업은, KOICA의 지원으로 2011년 개원한 짜까랑 소재의 '한-인도네시아 ICT 교육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중앙 및 지방 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IT 기술과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운영 역량강화 교육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금년 한해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은 IT 기술을 삼각협력의 방식으로 내년에는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으로 제3국의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게 된다.

금일 착수보고회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역량 진단 시스템 개발, 교육계획 및 평가, 현지파트너

십과 인프라(시스템)개발에 대하여 소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되었다. 또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KOICA와 인니 정통부, 공공행정교육원 등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동 보고회에서 김병관 소장은 우리의 전자정부 협력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책임 있는 정통부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Basuki 원장은 지속적인 한국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짜까랑 ICT 교육센터의 활용을 통해 공공과 민간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고 언급하였다.

KOICA는 동 사업을 통하여, 인니 공무원들의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IT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IT 제도에 기여하면서 기 지원한 짜까랑 ICT 교육센터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구축협력을 위한 역량 개발 등 기반을 쌓으면서 한국의 IT 인력 및 기업진출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반동지역상수도 시스템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KOICA는 4월23일 Adang Saf Akhmad 반동 짜따름강 유역관리청(BBWSC)장, 박종민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부소장 외에, 공공사업부(PU),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수행기관인 (주)유신 등 기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총 300만 불 규모의 ‘반동지역 상수도 시스템 사업’은 반동시의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의 댐, 상수도 등 수자원 인프라건설 기술을 전수하고 설계자문을 통한 효과적인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중간보고회는 2013년 1월 사업 착수 이후 1년 4개월 동안 수행한 내용을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점검하여 남은 기간 동안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KOICA, “빨렘방배수시설마스터플랜및 기본설계사업” 착수보고회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4월 29일, 빨렘방 시정부 대회의실에서 ‘빨렘방 배수시설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는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Harnojoyo 빨렘방시 부시장, Dwityo Akoro Soeranto 공공사업부 주거국 부국장, 최승철 한국 수자원공사 설계기술처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빨렘방시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총 260만 불을 투입하여 향후 2년간 추진하게 될 본 사업은, 빨렘방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이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지원하여 잦은 홍수로 인한 빨렘방 시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김병관 소장은 동 사업을 통해 시 정부 및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관계자들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앞으로의 본 공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Harnojoyo 부시장은 금번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정부와 협력사업을 실시하게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였고, 한국의 기술지원을 통해 빨렘방의 홍수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빨렘방 시는 홍수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번 사업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포토뉴스



4월25일, 금요일 한인회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김영선 대사를 공항에서 환송하였다.



4월5일 코참(KOCHAM)임원들이 김영선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홈페이지 주소: www.kocham.or.id**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가 5월1일부로 공식 개설

코참은 재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어려움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사회에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단체입니다. 코참은 인도네시아 KADIN, APINDO 등 인도네시아의 제 경제단체, 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한국의 제 단체 뿐 만 아니라 국제상공회의소의 주요 멤버로서, 국제적인 다양한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KOREAN CULTURE DAY 2014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는 해마다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4월 25~26일 이틀 간 “Korean Culture Day 2014” 행사가 열렸다.

올해 행사는 부채춤, 사물놀이, 탈춤, 노래자랑, 연극 행사와 K-POP커버댄스 경연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더불어 “Get Happy, Healthy and Trendy with K-Food” 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에게 한식을 알리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이미 인도네시아에 널리 퍼져있는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젊은 층에게 한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욱 친근하게 한식에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거나 시음 할 기회를 줌으로써, 인도네시아 인구의 30% 이상이 청년 인구 층에 속하는 인도네시아인의 한식 시장을 확대 해 나가는 데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AT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주최로 열리는 한식 페스티벌에는 젊은 층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이벤트들이 활용 된다.

다양한 한국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부스들이 마련되었고, 한국 음식을 주제로 한 토크 쇼와 한국 음식 퀴즈 대회, 한국 음식 시연과 시음 등 활동이 넘쳤다.

AT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는 이 행사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한식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미래의 소비 동력이 될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한식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식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KOWIN '한인여성 비즈니스 엑스포' 개최

한인여성의 경제활동 및 재능기부의 장을 펼치다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 지부 (KOWIN)의 한인여성 비즈니스 엑스포가 4월 12일 자카르타 소재 한국문화원 다문화 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 행사는 한인여성들이 꾸미는 작은경제, 큰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였다. 이날 참여한 업체는 인도네시아 여행상품과 정보를 제공하는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스, 한국세라믹, KEB HANABANK, PT. JINYOUNG, TOP PRINTING, 금단비, 레지던스 갈릴리, HOTEL MARRIOT, 자카르타 경제일보, 대상 웰라이프, PT. ALLSBON MEDIKA, ILOO & Co, 무궁화 유통, 키즈 아일랜드 프리스쿨 등 14개 업체가 각자의 부스를 준비해 회사 홍보제품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현순 KOWIN회장은 “자신의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한인여성들 개인



의 작은 힘을 모아 다양한 업종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더 나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여 큰 꿈을 펼칠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각 단체장들의 테이프 커팅식이 이어졌고, 본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벌어졌다. 참가업체 중 하나인 코리아 리크루트의 관계자는 “오늘 이 엑스포가 작은 출발을 하였으나 회를 거듭하면서 많은 참여자들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OWIN은 한국 여성부 산하단체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여성들의 힘과 지혜를 결집하기 위해 출범된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이다.

재외 한인여성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확보, 정보 교류, 연대강화 및 인재 발굴의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현재 해외 16개국 18개 지부로 형성돼 있다.



한 국관광공사(지사장 권중술)는 25일, 물리아 호텔에서 대사관, 한인회(회장 신기엽), 여행사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관광홍보대사 위촉 및 K-Festival 2014’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K-POP, K-Drama, K-Food, K-art, K-beauty 등 인도네시아 일상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한국문화콘텐츠를 홍보하고, 인도네시아와 달리 4계절이 분명한 한국의 자연,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 매력, 공연장, 테마파크 등 볼거리가 있는 한국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동남아 신성장국가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 현지 지사를 개성하고, 한국 관광매력을 홍보하고 다양한 관광상품과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의 인적교류를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2013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18만 9천명 이상이 방문하여 2012년 대비 26.8% 성장하였고, 자카르타 지사 개설전인 2010년 9만 5천명에 비해 약 2배 성장하여 4개년 연평균 25.7%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또한 작년 2013년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는 32만 4천명 이상이 방문하여 2012년 대비 6.8% 성장하였으며 양국 간의 관광산업 전망도 매우 좋다.

또한 한국은 기업체 인센티브 관광 목적지와 연수 프로그램 분야도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미용, 성형수술, 건강검진, 한방, 전문시술 등 의료관광 목적지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이 그룹 S4멤버인 필리(Firly)와 걸 그룹 SOS 멤버인 마리아(Maria)는 한-인니 문화교류에 따른 소중한 성과중의 하나이다. 두 그룹 멤버들은 2011년 인도네시아 갤럭시 수포스타 경연대회에서 최종 선발되어 한국에서 6개월간 K-POP 전문에이전시에서 힘든 트레이닝을 거친 후 가수로 데뷔하였고, 인도네시아 이외에서도 인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인 자질을 갖춘 젊은이들이다

한국관광공사관계자는 “필리와 마리아를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그들이 한국에서 체험한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인도네시아인에게 전달하고, 소통을 촉진하는 양국 간 문화교류의 아이콘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인의 한국문화와 관광에 대해 이해가 더 넓어지고, 양국의 문화관광 부문의 많은 발전을 타진해 보는 시간이었다.

< '한인사' 발간에 관한 협조 요청 >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인 '한인사' 발간을 위해 지난 3월 27일 한인회장을 발행인으로 하는 '(가칭) 한인사 편찬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및 한인사회 각 기관, 단체, 협의회 등 구성원의 협조가 필수적인 바,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대상

- 가. 한인회/편찬위원회로부터 서면/이메일/구두상으로 협조요청을 통보 받은 기업, 기관, 단체, 협의회, 개인.
- 나. 협조요청을 받지 않았더라도 한인사에 포함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이나 관련 단체 모두. (☞ 채택된 자료에 대해서는 책자에 그 출처를 명기할 것임)

2. 제출자료

- 가. 연혁
- 나. 인적사항: 집행부 및 주요 구성원
- 다. 사료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
- 라. 관련 사진
- 마. 기타 주요 행사나 사건 관련 자료

3. 제출기한 2014년 6월 30일

4. 제출방법 ▶ 편찬위원회 이메일 주소: bukupcw@gmail.com
▷ 참조: 편집장/이상기

5. 편찬위원 분담업무

- ▶ 발행인/신기업, 편찬위원장/김문환, 편집장/이상기, 사무국장/김재민, 간사/이경은
- ▶ 편집진 이상기, 박정자, 서미숙, 김길녀, 김소진(인쇄 코디)
- ▶ 집필진
- ▷ 기업진출사 김문환, 이승민, 신성철
- ▷ 단체, 업종별 이상기, 사공경, 채인숙, 조연숙, 이태복, 신영덕, 양승윤
- ▶ 자문단 승은호, 김재유, 배상경, 정무웅, 이현상, 김영만, 조용준, 송재선
- ▶ 감수(자료제공) 김현기(전 한국문화원장), 한국문화원
- ▶ 후원 재외동포재단,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THE WORLD KOREANS FESTIVAL 2014

2014 세계한민족축전

지구촌 한민족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
10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전 세계 33개국에서 300명의 동포가 참가하는 2014 세계한민족축전이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서울 및 대구에서 개최된다.

세계한민족축전은,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9년 창설한 이래 올해 24회째를 맞는 행사. 지금까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1만5,000여 명의 재외동포가 모국을 방문하였다.

그동안 세계한민족축전은,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고, 생활체육 활동 교류를 통해 한민족의 자긍심 고양과 해외 동포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10월 15일 등록 완료한 후, 16일 서울 경복궁 탐방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저녁에는 정부관계자, 생활체육 임원, 체육유

관단체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연(올림픽파크텔, 오후 7시) 행사를 갖는다.

동포들은 17일,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경북 영천) 방문 후 대구로 이동한다. 18일에는 낙동강길 걷기, 세계 최첨단기업 '대구텍' 견학, 섬유유통의 메카 '서문시장'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된다.

19일 열리는 한민족토론회에서는 동포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오후에는 체육행사도 열린다. 계명대학교에서 한민족 전통무예인 태권도를 배우며, 학교시절 운동회의 기억을 되살리는 세계한민족명랑운동회가 펼쳐진다.

공식적인 행사의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팔공산 동화사 방짜유기박물관 방문, 대구 '근대골목' 탐방 후 환송연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생활체육회는 5월 28일부터 세계한민족축전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와 동반 현지인은 6월 29일까지 국민생활체육회 웹사이트(www.wkf.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한화 30만원.



땅그랑 반톤 한인회 5월 소식

진정한 한인 속에서 하나되는 땅그랑 반톤 한인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한달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5월의 맑은 하늘처럼 아주 특별한 5월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달리한 세월호 고인과 유족들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침몰사고로 인한 실종자 분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 5월 어버이날 행사



2014년 5월 8일 12시 태능갈비.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을 늘 부모님 곁에 있는 자식들의 마음. 높고 깊으신 부모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금번 본국 참사로 고통받는 분들을 생각하여 이번 행사는 조촐하게 점심식사와 다과로 모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땅그랑 문화원 탐방(미술회화반)

매주 화요일(오전9시-오후5시)에 문화원 미술회화반이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선생님을 모시고 약 30명의 수강생들이 열심히 배움을 익히며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작품전시회를 비롯하여 올해도 전시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현재 한인들의 대상으로 한 범퍼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아마크파푸라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핸드폰을 오토바이 2인조에게 날치기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어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 땅그랑 반톤 한인회는 세월호 참사 동포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낭시아 및 땅그랑 지역 식당에 비치된 모금함에 동참하시거나 한인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땅그랑 한인회 사무실 : (021) 9179-6313

롯데, 인도네시아대학생에 장학금 지급



롯데장학재단은 29일 인도네시아 5개 대학 28명에게 올해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카르타 롯데마트 본사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는 김영균 롯데마트 동남아 본부장, 백운성 롯데장학재단 이사, 윤주경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법인장, 서창석롯데쇼핑에비뉴법인장등 롯데그룹 계열사 관계자들과 수혜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

롯데장학재단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중인 장학사업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대학교(UI), 나쇼날대학교(UNAS), 반둥공대(ITB), 보고르농대(IPB)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아프마자야대학교(ATMA JAYA)가 추가되어 총 5개 대학 28명 학생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자카르타 중심지인 HALIM 1골프장에서 연휴임에도 30여명의 동문이 참가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여 각축을 벌였다. 골프대회 시상은 지역우승, NEAREST, LONGEST로 나누어 시상하였으며 이번 대회 지역 우승은 자카르타 지역이 우승(핸디캡 합 +6)하여 우승컵과 우승상금을 수상하였다. 특별히 임관기념식으로 2기 50주년 2명, 12기 40주년(2명), 22기 30주년(5명), 32기 20주년(3명)의 동문에게 기념패를 증정하고 축하하였습니다. 그 외 6기 장임 고문이 약정한 특별기금을 김수용 지회

장에게 전달하였으며, 2013년 사무국장으로 수고한 23기 이지현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김경국(28) 청년조직 활성화 위원장의 지난 3월14일의 30기 이하 청년 모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회장 18기 김수용 (0816-187-1150)

<사무국>

사무국장 26기 김광석 (0811-816-459)-ROTC사무실
 사무 1 차장 30기 김기주 (0812-120-7497)-kiz
 사무 2 차장 30기 목의수 (0811-94-7189)
 부총무 38기 김성주 (0811-111-5061)
 40기 이지현 (0811-900-4222)



THE 4TH INTERNATIONAL DRAWING CONTEST 제 4회 국제사생대회

26일, Lebakbulus에 위치한 싱가포르국제학교 (SIS)에서 ‘제4회 국제사생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이 한인미술협회(회장 이수진)와 함께 주최하는 행사로 한-인니 양국 학생들이 자유로운 표현과 경쟁을 통해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연대감을 쌓기 위한 행사로 마련되었다. 매년 한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들이 함께 참가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100여명 넘게 증가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치러진 이번 대회는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들 250여명이 참가하여 각자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펼쳐보였다.

일찍부터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자리를 잡은 아이들은 꼼꼼이 생각하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쓱쓱 순

식간에 저마다의 생각을 색색이 꺼내 놓으며 스케치를 해 나갔다.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어른이 된다면’ 이란 두가지 주제로 열렸으며, 당일 대회 현장에서 주제가 발표됐다. 오는 5월 10일 한국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우수작 50여 점은 5월 9일부터 14일까지 한국문화원 다목적홀과 수라바야 ICC에서 전시된다.

김석기 문화원 원장은 “본 대회를 통해 재능 있는 어린이들의 잠재되어 있던 그림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국적 어린이들의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술협회 이수수 전회장은 “미술대회를 통하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에 고마움을 전했다.

Window of K-Art Preview



4월 23일 19시 카사블랑카몰 로비에서 ICC 감상기 대표, 심여화랑 성은경 대표, 손용 CJ 인도네시아 지역본부장, 이이남 작가 외 약 30명 내외가 모인 가운데 Window of K-Art 개막행사가 열렸다.



2014 그림사랑 작품발표회

그림사랑회의 작품발표전이 4월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문화원에서 있었다. 박정자 선생님의 지도아래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은 잔잔한 여운을 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제 2회 열린강좌 우리 가족을 위한 천연 한방 탈모 예방 샴푸와 페브리즈 (모기퇴치.방충제) 내 손으로 만들기

우리 조상들은 머리를 감는 일부부터 몸을 닦는 일까지,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 썼습니다. 자연과 생활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지요. 한.인니 문화연구원에서는 온갖 화학 약품과 세제들에 노출된 우리의 생활을 조금씩 바꿀 수 있도록 천연재료로 생활세제를 만드는 실습 강좌를 마련합니다. 내 가족이 날마다 쓰는 샴푸, 효과 좋은 모기퇴치제까지...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함께 만들어 보아요.

- 강사 : 윤정혜
일시 : 5월 10일(토) 09:30 - 12:00
장소 : 한*인니 문화연구원 (코리아센터 404호)
회비 : 35만 루피아
준비물 : 빈 스프레이 통(페브리즈 용)

* 신청접수: 081584797879 (선착순 20명)

세계가 찾아오는 외대부고 글로벌캠프 제5회 HAFS GLOBAL CAMP (SAT, ACT)



기간

1차 캠프 : 2014년 6월 22일(일) ~ 7월 18일(금)
2차 캠프 : 2014년 7월 20일(일) ~ 8월 15일(금)

대상

SAT / ACT를 준비하는 중2~고3 학생

장소

1차 캠프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2차 캠프 :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용인외대부고)

수업내용

SAT 대비반 - Critical Reading, Math, Grammar, Essay Writing
ACT 대비반 - English, Math, Science, Reading

추가수업

SAT 대비반 - SAT II (Math2C, World/US History, Chemistry 등)
- AP (Calculus, Micro/Macro Economics 등)
ACT 대비반 - Essay Writing

지난 2년간 용인외대부고(구:용인외고) 글로벌 캠프에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쿠웨이트, 멕시코, 인도, 모나코,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요르단, 파나마,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이집트,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82-31-324-0015 / 070-4616-0393

Hankuk Academy of Foreign Studies
HAFS Global Camp



Pulau Payung

<행복한 아이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고
그저 모래와 바다만 있으면 행복한 아이들
어떤 모델을 세워 놓아도 이런 행복한 표정은 만들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행복해 하는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JIKS

제4기 학부모샤프론 봉사단 발대식 개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김승익)는 2014년 4월 16일 학부모샤프론봉사단 제4기 발대식을 JIKS 다목적실에서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학부모샤프론봉사단(단장 김홍삼)의 임원과 회원 64명을 비롯하여 중·고 학부모 및 교직원 참석하여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모색했다.

발대식 내용은 샤프론 신입 임원단 임명장 수여와 전체 회원 선서, 격려사 및 축사, 작년 임원단 감사장 수여 및 활동 보고, 2014년도 활동 계획 보고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승익 교장은 “JIKS 학생들과 함께 3년 동안 현장 체험 형태로 다양하게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애를 써주신 샤프론봉사단의 역할이 컸다” 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입 회원 2~3급 연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밥퍼해피센터 봉사, 수까부미 지역사회 봉사와 통역 봉사, Yayasan ‘Sinar Pelangi’ 고아원 일일봉사, 행복마켓 베품시장, 무지개공부방 등 봉사활동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움을 줄 계획이다. JIKS는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과 삶의 보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차세대 자원봉사자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샤프론(Chaperon)은 미국의 초중고에서 선생님을 도와 학생들의 교외활동을 인솔, 지도하는 학부모 봉사자를 지칭하는 말이며,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은 비영리자원봉사단체(NPO)인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산하에 있는 학교봉사단 조직이다.



제7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 개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제7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고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원서접수 : 2014년 4월 10일(목) ~ 4월 24일(목)
2. 접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3. 응시료 및 준비물: 과목당 20만 Rp,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시험일 및 시험시간

시험일		시간	비고
5.10(토)	국어	08:30~10:00(90분)	시험시작 30분 전에 도착, 매 교시마다 시험 10분전 입실
	논술	10:40~12:40(120분)	
5.11(일)	수학	08:30~10:30(120분)	
	영어	11:10~12:10(60분)	

5. 응시 자격
 - *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 국내·외 대학 진학희망자
 - 한국 학교 및 외국계 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자(재외국민)
6. 수상자 발표일
2014년 6월 3일(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7. 시상 내역

상명	인원	시상내역
대상	과목별 1명	상장
최우수상	과목별 2명	"
우수상	과목별 3명	"
장려상	과목별 20명내외	"

8. 응시자 시상 및 특전
본 대회는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로 수상실적은 대학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수상경력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한 자료 및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수학 특기 재능 보유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 사항
 - 수험표는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신분증(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문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TEL 844-4958 ext 153)
 및 고등부교무실(TEL 844-4958 ext20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JIKS 홈페이지(<http://www.jik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주 관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후 원 :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아협의회 인니지회, KOICA, 재인니 인회, KMK, CJ, 우리은행, Bank KEB Hana, KOWIN,PT.OZGUITAR, 코린도 그룹 등

중등과정 전입생 전형 안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김승익)는 2014학년도 추가 전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2014. 5. 5(월)~2014. 6. 6(금)
전형일시	2014. 6. 14(토) 08:00~13:00
전형과목	국어, 수학, 영어, 면접
합격자발표	2014. 6. 18(수) 12:00
대상	7~10학년

학교 사정상 내용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www.jiks.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강주미 [021-844-4958(Ext.1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청소년감동캠프 신청 안내

“자녀 성공의 Key는 아버지가 쥐고 있다”

작년에 이어 실시하는 ‘2014년 청소년감동캠프’는 (사)두란노 아버지학교운동본부(인도네시아지부)와 연계하여 소중한 우리 자녀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고, 부모님과의 사랑을 확인하여 가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의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자카르타의 모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일 시 : 2014. 5. 29 (목, 공휴일)
2. 장 소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반딧불이관)
3. 대 상 : 자카르타의 모든 7~12학년 희망자 (아버지와 자녀)
4. 참가비 : RP600,000(1팀 2명일 때), RP750,000(1팀 3명일 때)
5. 접수기한 : 2014. 4. 21(월) ~ 2014. 4. 30(수)
6. 수납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II), 정재선 선생님
7. 참고사항 : ① 아버지와 2명의 자녀까지 참가 가능합니다.
② 오전 9:30분까지 학교 도착 바람이며, 17:00시에 종료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참가자가 확정되는 대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사)두란노 아버지학교운동본부 인도네시아지부장 이후형

J I S



IASAS 육상경기



(학생기자 김혜경)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IASAS 육상경기가 JIS (자카르타국제학교)에서 개최되었다. IASAS는 JIS를 포함한 여섯개의 동남아시아 국제학교 (방콕국제학교, 마닐라국제학교, 싱가포르국제학교, 타이완국제학교와 쿠알라룸푸르국제학교)가 매년 모여 다양한 종목의 운동 경기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남아시아 국제학교 연맹이다.

IASAS가 주최되는 장소는 매년 다르다. IASAS Track and Field는 작년에 마닐라국제학교에서 개최되었지만 올해는 자카르타국제학교에서 열렸다. Track & Field는 멀리뛰기, 높이뛰기, 3단점프, 창던지기,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4x100, 4x400, 4x800, 1600m Medley 계주 및 100, 200, 400, 800, 1500, 와 3000 미터 달리기, 100, 110, 와 400 미터 장애물 뛰어넘기 등 여러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Track & Field에서 릴레이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팀으로 이루어져 같이 활동하는게 아니라 각자 종목을 맡아 다른 학교 아이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축구와 농구같은 팀워크를 중심으로 둔 운동들보다는 정신력이 강해야되고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각자 한 종목 경기를 하더라도 동료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고 그것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한다.

JIS 대표 선수들 중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땀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학생들은 메

달 6개를 딴 12학년 Aidan Kinney, 메달 5개를 딴 Angus Proudfoot, 과 100m dash 에서 일등을 한 Coxinga Widjojo 였다. 또한 Aidan Kinney는 1500m 달리기에서 4:09:51 라는 놀라운 시간으로 기록을 깨뜨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몇몇 IASAS 경기들이 목요일과 금요일 수업 도중과 학교 가지 않는 토요일에 진행되어 관람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고 전하였다.

또한 IASAS Exchange 라는 경기도 있다. 이 경기는 IASAS 본 경기를 앞두고 각 학교가 선수들을 교환하여 경기를 치루며 IASAS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위해 연습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육상 교환경기는 싱가포르국제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경기 능력을 향상시켜 IASAS 본경기를 위해 더 철저히 준비를 하였다. IASAS 육상은 12일에 폐막식으로 끝을 맺었다. 결국 JIS의 남자 육상부 팀은 동메달 수상을 하고 여자육상부 팀은 5위를 차지하였다. 올해 자카르타국제학교에서 주최된 IASAS Track & Field를 통해 아이들의 육상 실력이 한층 늘어난 모습과 선수와 동료들이 서로 응원하는 모습에서 학교가 기쁨과 희망으로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 4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전기세 인상 섬유업계 구조조정 불가피 최저임금 인상 겹쳐 중부자바로 이전하는 공장 늘어

섬유업계는 오는 5월 1일 전기세 인상에 앞서 구조조정뿐 아니라 공장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급격한 요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4일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연합회(API)의 아테 수드라жат 회장은 “우리는 대량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1,200여개 섬유기업이 있으며 총 150만여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그는 “올해 산업용 전기세가 인상됨에 따라 해고되는 섬유업계 노동자 또한 전년도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근로자의 50% 가까이 될 수도 있다”며 “가장 첫 순위는 전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봉제, 폴리에스테르 등의 분야이다. 이들 업계는 대량 해고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재 섬유업계에는 대량해고 외에도 업계의 사업지역 이전이라는 이슈가 있다.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계 기업이 자보테따벡(수도권 지역)에서 중부자바로 사업을 옮겨가는 중이다”며 “산업전기세 인상이 대규모 사업이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API의 대변인인 에르노비안은 “지난해부터 중부자바로 대규모 이전이 이뤄졌다. 중부자바의 최저임금이 수도권지역에서 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API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급격한 지역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60개의 섬유업체가 중부자바로 이전했다. 에르노비안 대변인은 “전기세 인상으로 인해 대규모 이전이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섬유업체 뻬 브라더스(PT Pan Brothers Tbk.)는 올해 총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중부자바의 보올랄리 지역에 공장 4개를 세울 예정이다. 이 외에도 뻬 브라더스는 6천만 달러를 투자해 2016년까지 중부자바에서 7개 공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뻬 브라더스의 부사장 앤 파트리카 수판또는 “향후 3년 안에 생산 수용라인을 늘릴 것이다. 신규 공장건설을 통해 생산 수용량을 늘려 2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스마랑 소재 디뵈느고로 대학교의 수기안또 경제학자는 “자보테따벡에서 중부자바로 옮겨간 섬유업체들은 중부자바에서 충분한 경제적으로 소득을 누린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섬유업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중심지역은 중부자바의 보올랄리, 까르따수라, 시도아르조이며 스라겐 지역까지 섬유이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산하 제조업기반국장인 하르얀또에 따르면 섬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보전금을 구상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인프라 개선 위해 PPP 강화해야

<민관협력사업>

2015년 '아세안 항공 자유화 협정' 실행키로
2025년 항공기 이용 승객만 3억명에 이를 것으로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 수용량을 더욱 넓히기 위해 항공부문에 있어서 민관협력사업(PPP)을 더욱 강화시키고, 향후 5년간 항공 인프라 지출을 6배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글로브 23일자에 따르면, 국가개발위(Bappenas)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요증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5-2019년 사이 항공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15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Bappenas 민관협력 부문의 바스타리 인드라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2014년 항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약 26억달러를 배정했다.

바스타리는 22일 2014 인도네시아 항공박람회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민관협력 없이 정부의 비용으로만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박람회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의 일부로 인도네시아의 공항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오는 11월 5-7일 시행된다. Bappenas가 추정된 150억달러는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확장, 메단의 꾸알라나무 국제공항, 서부자바 까라왕 지역의 개발중인 공항 시설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외딴 지역의 45개의 새 공항 시설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전에 동부 누사뎡가라 플로레스 지역의 라부안 바조 공항과 람땡의 탄중까랑 공항 등을 포함해 민간기업들이 작은 공항들을 관리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밤방 수산또노 교통부 차관은 “많은 민간기업 투자자들이 중부 술라웨시 팰루지역의 공항, 탄중 까랑, 라부안 바조 공항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며 “교통부는 앞으로 4-5달 후 이 문제에 관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 덧붙였다.

라부안 바조 공항은 동부 누사뎡가라주 플로레스 섬 서쪽 끝 망가라이 지역에 소재한 공항으로 이 지역의 유명한 코모도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허브 장소로 자리매김해왔다.

중앙통계청(BPS)은 지난해 국내선·국제선을 포함해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은 6,87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내년에 실행되는 운항횟수의 제한 없이 운항이 자유로운 '아세안 항공 자유화 협정(Asean Open Sky policy)' 의 추가 정책을 제외하고도 오는 2025년까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3억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자유화 협정은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면 당사국간 여객, 화물 등 항공 시장을 상호개방하여 항공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된다. 협정을 체결하면 참여하는 양국 항공사들간 code-sharing등이 가능해지고, 국제노선에 대한 진입, 항공사의 수와 운항 편수, 이원권, 운임, 전세기 운항, 항공기 관리 등 제분야에서 규제가 폐지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국제공항협회의 데이터는 지난해 수카르노 국제공항은 아시아국가 중 세 번째로 가장 붐비는 공항으로 나타났다. 1-2위는 각각 중국의 베이징 국제공항과 일본 도쿄의 하나네다 국제공항이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홀란 “만다리의 BTN 인수 강행할 것”

〈국영기업장관〉 〈국립저축은행〉
BTN 직원 대대적 시위, 최근 실적 호조 주장

다홀란 이스칸 국영기업장관은 만다리 은행의 국립저축은행(Bank Tabungan Negara·BTN) 인수계획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홀란 장관은 “만다리 은행이 BTN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강행할 것”이라며 “향후 BTN 인수가 실현되면, 동남아시아 재계 3위에 드는 메가뱅크가 탄생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은행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번 인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BTN에서 국립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지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는 인구규모가 크지만 말레이시아와 비교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뒤쳐진다고 평가 받는다. BTN이 만다리 은행으로 인수되면 인도네시아 국내은행이 말레이시아계 은행을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홀란 장관은 이번 인수계획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인수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규정상 관련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이나 인수문제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인수를 반대하는 주택개발업자들은 현재까지 BTN의 재무실적이 나쁘지 않았으며 BTN의 긍정적인 재무성적을 흡수합병의 반대 근거로 들었다.

아리 뜨리 뿌리요노 부동산개발업체협회(Apersi) 관계자는 “BTN은 지난해 4분기 이익이 14.53% 증가해 1조 5,600억루피아로 전년의 1조 3,600억루피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는데 이번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오히려 BTN에 자금을 추가 조달하거나 다른 사업 추가를 지원하여 BTN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만다리의 주택 소유 신용 대출 상품이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BTN이 만다리로 인수된 들 큰 방책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BTN의 행원 수천 명은 20일 인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인수에 따른 대량 해고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BTN 주택대출의 주요 고객이 저소득층인 것에 반해, 만다리의 주 고객은 중·고소득층인 점을 들어 BTN 흡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지에 대해 회의를 표시했다.

BTN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월수입 350만 루피아 미만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포함 주택대출 사업을 만다리 은행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인수가 이뤄지면 주택금융 업계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메이저은행의 BTN 인수계획은 2005년에도 부상했으나,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지 않다며 BTN 노조의 항의가 거세 무산된 바 있다. 현재는 만다리 외에도, 인도네시아 락얏 은행(BRI)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جاکار타
경제일보

Jakarta Biz Daily
Pusat Bisnis Tower 10th Fl 10010,
Jl. Jend. Sudarto Sudarto No. 50-51
Jakarta Selatan 12950

금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둔화세

1분기 총 투자실현액, 14.6% 증가한 100조루피아
내국인직접투자는 26% 증가한 34조루피아 달성

인도네시아 금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년 ‘선거의 해’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을 느껴 인도네시아로의 투자를 망설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글로벌 경제 회복이 더더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5일자에 따르면, 투자조정청(BKPM)은 24일 금년 1분기 FDI 실현액은 전년대비 9.8% 증가에 그쳐 72조루피아(62억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2013년도 4분기 성장률이 25.4%인 것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하지만 금년 1분기 총 투자실현액은 내국인직접투자(DDI)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한 106조6천억루피아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내국인직접투자는 25.9% 증가한 34조1천억루피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對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투자교역국으로 금년 1분기 각각 12억8,100만달러와 9억5,190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산업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매력적이고 전망이 밝다고 기대하는 산업부문은 제조업과 광산업으로 각각 FDI의 50.9%와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즈하르 루비스 투자조정청 부청장은 “인도네시아의 가공 처리되지 않은 광물은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 광물을 수출하기 전 국내 가공을 실현화 하기 위해 서부 깔리만탄의 니켈 처리 체련소와 북부 말루주주의 보크사이트 체련소 2곳이 건설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총 투자실현액은 전년대비 22.4% 증가한 398조6천억루피아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에 BKPM은 금년도 투자증가율을 전년대비 15% 성장 목표로 잡았다.

뱅크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BII)의 주니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에 FDI가 둔화되는 경향은 외국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투자여부를 대선의 결과에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분간 투자자들은 총선과 대선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망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부문에서 두 번째로 큰 부문은 가계소비로 GDP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년 6%의 GDP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더 많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 공항·항구관리·통신·계약품 등의 일부 산업품목에서 외국 투자 지분 허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DNI) 수정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과 민족주의 색채강화로 인한 정치적 여파로 DNI 수정안은 아직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BS 은행의 군디 짜야디 이코노미스트는 “DNI 수정안의 핵심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지분 소유 완화제도는 우리도 열망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며 “FDI와 같은 장기간 외국직접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경상수지 적자문제도 조금씩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외부 자금조달을 완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FDI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국제수지는 수년간 경상수지 적자의 압박이 계속 되고 있다.



출범식

좌로부터 한인회 신기업 회장, 주인니한국대사관 김영선 대사, 하나은행 김종준 은행장, 금융감독청 물리야 부원장, 외환은행 윤용로 은행장, 인니 KEB HANA 이화수 부행장



한국계 금융사 중 단일국가 최대 네트워크, 총자산 13조루피아 은행 탄생

인도네시아 KEB HANA Bank 출범

외국환/기업금융의 강자 외환은행이 리테일의 선두주자 하나은행과 만나 힘찬 출발

2014.3.10.자로 인도네시아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을 완료하고 PT.Bank KEB HANA 로 새롭게 태어났다. 인도네시아 외환은행은 1990년에 출발하여 외국환 기업금융 부문에서 한국교민 및 기업체에 대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반면, 인



이화수 부행장

도네시아 하나은행은 현지화를 지향하며 2008년부터 후발주자로 출발, 리테일 영업을 위한 채널, 서비스조직, 상품 등을 급속도로 확대해나가며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왔다. 통합은행은 총자산 13조 루피아, 점포수 40개, 임직원 550명 규모를 확보함과 동시에 Debit Card, 모바일뱅킹, PB서비스, 특화 외국환 솔루션, 개인예적금,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Glocalization

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통합은행의 이화수 부행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 금융사 최초로 해외에서 현지금융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차별화된 현지화금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객은 물론 인니고객들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하고, 스마트한 금융을 선보이며 인니에서 가장 고객지향적인 은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점포수 300개와 리테일포트폴리오를 40% 확보한 인니 TOP20 은행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 저희의 장기성장 목표입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니 KEB HANA는 TOP20 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과 동시에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년도에는 Medan, Makasar, Solo, Karawang, Sukabumi 등지에 점포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카르타에도 SCBD를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5월중 Callbanking 서비스를 론칭하여 365일 24시간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개인신용대출 및 USD계좌를 통한 ATM 루피아출금 서비스도 론칭하여 고객편이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Debit Card에 Visa 제휴와 신용한도 부여를 통해 기능을 대폭으로 강화한 ‘KEB HANA Debit Card’ 를 출시코자 준비중에 있다.

KEB HANA 의 힘찬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도네시아 KEB HANA 출범식 이모저모]
인도네시아 KEB HANA 는 2014.3.10 자카르타 Marriot



호텔에서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및 인도네시아 주요 기관장과 감독기관, 현지고객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KEB HANA 는 지난 2월 현지 감독당국의 합병승인과 법무부 정관 승인을 거쳐 전산 및 Operation 통합까지 완전한 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출범식에는 본사 외환은행 윤용로 은행장과 하나은행 김종준 은행장이 참석하였으며 입을 모아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TOP50 달성을 위한 핵심지역이 인도네시아라는 점과 양은행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서 서울 본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정으로 물들인 바래지 않는 기억 정서와 기억

“감정으로 물들인 바래지 않는 기억”이라는 다소 시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독자는 없을 것이다. 아주 슬펐던 혹은 아주 기뻐던 일들이,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떨렸던 첫 만남이나 절망스러웠던 이별 같은 개인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9/11 참사 같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기억에 끼치는 감정, 기분, 정서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정서와 기억에 관한 흥미로운 심리학 연구를 얘기해 보자.

9/11참사처럼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감정이나 정서가 우리의 기억에 끼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 경험뿐만 아니라, 조건을 보다 엄격히 통제된 실험실 상황에서도 이러한 정서의 영향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람들은 정서적인

단어들(욕이나 성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을 중립적인 단어들 보다 훨씬 더 잘 회상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일 년 후에, 봤던 그림과 그렇지 않은 그림을 섞어낸 후 봤던 그림을 찾아내라고 하면 중립적인 그림들보다 정서적인 그림들을 훨씬 정확하게 잘 찾아낸다고 한다. 아울러 정서 처리에 편도체(amygdala)라는 대뇌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fMRI 같은 뇌영상 장비로 살펴보면 이 편도체가 정서적인 단어를 보고 기억해 낼 때 훨씬 높은 활동을 보이며, 편도체가 손상을 입은 환자는 일반인과는 달리 정서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 증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정서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우리의 인지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우선 기억 과정이 부호화, 저장, 인출이라는 세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정보처리과정에 정서를 대응 시켜보자. 그러면 당연한 첫 가능성으로, 우리들이 정보를 받아들

이는 초기 과정 즉 부호화 과정에서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정서 상태가 선택적으로 특정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것이고, 그 정보를 처리하여, 정서가 동반되지 않는 기억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기억 흔적으로 남겨 놓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으로 인출 과정에서의 영향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 상태가 여러 정보 중 그 정서 상태에 맞는 정보만을 끄집어내도록 일종의 걸처럼 작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부호화 단계 건 인출 단계 건 정서가 ‘기억하기’의 맥락 혹은 상황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기억하기’라는 ‘축구경기’가 열리는 ‘축구장(홈구장 혹은 상태 팀 구장)’이 ‘정서’가 되는 셈이다. 개들도 자기 동네에서는 한 점 잡고 들어가듯이 정서가 기억에 한 수 잡고 가게 하는 것이다.

기분 일치 효과

우울증 환자의 경우 기억력이 저하되는 게 보통이지만 다른 기억보다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더 자주 기억해 낸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 기분일치(mood congruence) 효과와 기분-상태 의존(mood-state dependent) 인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정서 상태와 맞는 즉 일치하는 정서적 기억을 더 쉽게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슬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 과거를 생각해 기억해 내다보면, 다른 것보다 슬펐던 사건들이 더 잘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현상이다. 전형적인 예가 우울증 환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경우 기억력이 저하되는 게 보통이지만, 다른 기억보다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더 자주 기억해 낸다고 한다. 필자도 이따금씩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과거 몇 년 동안에 회상할 수 있는 것을 적어 제출하라고 한다. 학생들이 적어 놓은 것을 보며, 학생들의 과거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학생이 현재 어떤 상태 인가를 알아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분-상태 의존 기억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 현상이 두 번째의 기분-의존 기억 현상이다. 이 현상은 부호화 할 때의 정서 상태와 인출 할 때의 정서 상태가 일치하면 기억해 내기가 쉽다는 발견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슬픈 감정 상태에서 외웠던 단어는 슬픈 기분 상태일 때 회상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즐거운 기분 상태에서 배운 것은 즐거운 정서 상태에서 기억을 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통 이러한 기억 효과를 포괄해 상태 의존 기억이라고 하며, 물리적 환경이나 약물에 의한 맥락 효과도 포함된다.

실험 상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해 하는 독자가 있을 것 같으니 부연 설명을 하자. 보통 대학생 집단을 피험자로 사용해, 반은 슬프고 우울한 상태로 유도하고 나머지 반은 명랑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조성한다. 어떻게? 여러 가지 기분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쉬운 것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아’와 같은 우울한 곡을 들려주거나, 모차르트의 ‘소야곡’ 같은 경쾌한 음악을 듣게 해 기분 상태를 만들면 된다. 혹은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필자의 동료는 예전 정서에 관한 실험을 하며, 우울한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 서정주의 “애비는 종이 었다.... 나를 키운 것은 8할이 바람이었다.....” 로 이어지는 ‘자화상’ 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출생과 과거에 대한 회환과 절망 상태를 표현했기에 우울한 감정 상태에 안 빠질 수 없는 시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원하는 대로 특정 정서 상태를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단어쌍이나 텍스트를 읽고 기억 하도록 한 후, 나중에 같은 정서 상태나 다른 정서 상태를 만든 후 학습했던 것을 회상하게 하면 된다. 결과는 독자들이 기대한 대로 이다. 같은 정서 상태에서의 학습과 회상을 한 조건이 다른 조건보다 좋은 기억을 보인다.

정서의 표현 통제

정서, 기억, 정서 표현의 통제와 관련하여, 최근 흥미로운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간략히 소개하겠다. 필자는 처와 같이 TV 연속극을 보다가 슬픈 장면이 나오면, 괜히 ‘킴킴’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정을 쳐다보곤 한다. 왜? 아니, 옆에 있는 처와 손잡고 같이 눈물을 글썽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어떤 이유에서건 필자는 정서를 억압하는 감정을 숨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최근 심리학자인 리차드와 동료들은 이런 외적 신호로의 정서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인지적 기능을 저해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서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적 기능을 저해할까?

이들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부상당한 남자의 영상을 보여주며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도록 하였으며, 영상과 함께 그 남자의 이름, 직업, 부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음성으로 들려주었다. 그리고 실험 참여자들을 무선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에게는 영상을 보며 정서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즉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다른 집단에게는 특별한 지시 없이 보게 하였는데, 실제 전자의 지시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늘 어떤 형태로든 내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서를 숨기고 표현을 억압한 참여자들이 음성 정보에 대한 기억 검사에서 훨씬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서에 대한 통제 혹은 규제가 기억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연구자들은 정서 표현을 억압하는 과정이 부적 피드백 루프를 통해 일어나며 우리의주의 자원을 소모하는 것이기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의 억압이 기억뿐만 아니라 면대면의 상호작용 소통에도 장애를 준다는 결과도 인용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김영진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켄트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있으며 [인지공학심리학: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의 이해], [언어심리학], [인지심리학], [현대심리학개론] 등의 저작이 있다.



이 순간, 영원히

시 : 이동균 / 그림 : 이태복

푸른 꿈, 하얀 날개, 파란 마음을
오늘 난 보았다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험한 것처럼
나 또한 어려운 길을 걸었네.

알프스 간이역을 지나면서
조그마한 집 한 채를 보았다
내 인생의 간이역도
여기였으면 좋겠네.

힘차게 역주하는 기관차는
어느덧, 하얀 눈 덮인 산에 다 달았다
내 삶의 밤아 있는 힘도
여기까지 와서 좀 쉬었다 가면 좋겠네.

알프스 하얀 산들이 서로 어깨동무하며
웃고 서 있네
우리도 서로 얼굴 비비며 두 손 꼭 잡고
오늘 이 순간,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네.

내려오는 길, 푸른 수풀 속에 노란민들레가
서로서로 바람에 하늘거린다
우리도 서로 흔들흔들
춤추며 살자.

푸른 꿈, 하얀 날개, 파란 마음을
오늘 난 보았다
내 두 눈이 까맣게 될 때까지 가슴속 깊이
이 순간, 영원히 진하게 남아 있으면 좋겠네.

이동균
대한의사협회 정형외과 전문의 정희원이동균정형외과 원장 역임
세계한인무역인협회 본부 상임이사(주) 돌석인도네시아.
돌석코리아 대표이사



초록은 하나의 풍경이다

김현미 (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회원)

초록의 축제가 풍성한 곳. 나무 끝자락에서 금방이라도 초록의 수액이 후두두 떨어질 것만 같은 푸르름은 나로 하여금 그 그늘 아래 내 안의 습기를 내어 놓고 말리고 싶게 한다. 질푸르다 못해 농염한 그 초록을 보노라면, 내 안의 가여운 내가 눈 녹듯 작아지고, 어린 날의 여렸던 연듯빛도 힘이 입혀져 질푸름의 박동으로 내게 대답한다. 새벽안개 자욱한 신비한 시간 숲 속에서 나는 자연과 한 호흡으로 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다. 낮은 풀의 미세한 움직임조차도 전율로 전해져 왔던 그 순간. 의식의 문을 걸어내고 무의식의 수면 밑으로 들어 가 본 기억이다. 나는 '나' 라는 우주를 경험 했었던 것 같다. 그 때의 숲의 빛



깔과 나무의 향기, 잎새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한다. 햇별이 칼날같이 내려 꽃이는 시간. 햇빛의 물결이 나무그림자와 교차를 이루며 만들어 낸 그림을 보았다. 때때로 답을 알 수 없을 때, 분주함 속에서도 일 진행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을 때 나는 그 초록의 동굴 안에서 내 안의 진실한 욕망과 만나고 대화하며 나다운 답을 찾았다. 우박처럼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가 가득한 숲에서 내 안의 울분을 토해내며 빗소리를 방패 삼아 끼이 끼이 소리 내어 울기도 했었다. 이토록 다양한 초록의 스펙트럼 안에서 나는 마음 한 자락을 우두둑 무너뜨리면, 가지치기를 끝낸 나무가 되어 있었다. 초록의 숲이 좋아 이렇게 물들여져 가고 결국은 스스로 초록이 되어 가는 나를 본다. 시인의 구절처럼 나는 초록 곁에서 초록을 그리워하는 일을 한다. 오늘도 초록이 만드는 그 그림자. 바람과 햇빛이 만드는 흉내 낼 수 없는 변주곡을 들으러 보고르 식물원으로 갔다. 보고르 식물원은 19세기 총독주변을 영국정원사가 설계하여 만들기 시작했다, 1817년 47헥타르규모의 대지로 개발되면서 19세기에 이르러 서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열대지방의 식물표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17000종 이상의 식물을 갖춘 살아 숨 쉬는 박물관

관이다. ‘비의 도시’ 보고르. ‘걱정이 없는’ 이라는 뜻의 ‘buitenzorg’가 어원인 보고르. 영국 통치 당시 인도네시아의 수도였으며 자바의 첫 힌두왕국인 보고르. 이번 문화탐방은 35명의 인원으로 사공경 한*인니 문화원 원장님과 박선이 수석문화탐방팀장님의 안내로 가는 차 안에서 보고르에 관한 전반적인 역사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들었다. 탐방 팀을 위해 준비해온 여러 가지 간식들을 먹으며 우리는 보고르 식물원에 도착했다. 보고르 식물원은 4개의 산책로로 되어있다.

1. 첫 번째 산책로 (가장 오랜 수령의 리찌나무가 있는 산책로) 정문 양쪽 기둥에 가네사

석상을 두고 영국 부총독 라펠스의 부인 올리비아의 추모비가 있는 산책로가 펼쳐져 있다. 립스틱의 재료가 되는 붉은 잎저를 가진 lipstick palm, 큰 소시지 처럼 생김 열매를 가진 키젤리나 아프리카의 열매는 대부분 코끼리 사료로 사용된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말로만 듣던 세계에서 가장 큰 꽃 사체화 (titan arum: 백합과 식물)를 보고 싶었으나 3~4년 만에 죽어서 보지 못했다. 현재는 다시 생육



을 하고 있다고 한다. 꽃에서 죽은 시체냄새가 난다고 하여 이 이름이 붙여졌다. 조금 지나면 프랑스풍의 아름다운 정원과 ‘신의 손’이라는 청동상이 있는데 이 다섯 손가락은 인도네시아의 다섯 개의 섬 혹은 5대 국가 철학 (Belief in God, Humanity, National Unity, Democracy, Social Justice)을 의미 한다.정원을 즐기며 걷다 보면 보고르 식물원에서 가장 오래된 리찌 나무를 볼 수 있다. 이 나무는 옛날에는 현재의 3배의 굵

기까지 되었었다고 하는데 수령이 더해가며 기둥 아래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가며 몸체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대사소모량을 줄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생명체의 순리로 여겨진다. 리찌 나무는 젊음의 화창한 봄날과 짙은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어 다른 나무보다 오래 견디며 살아온 그윽한 향기이며 아름다운 자태 그 자체이다. 의식의 확장이 필요한 어려운 시절이 오게 된다면 이 리찌 나무 아래에서 현자들의 말을 떠올리며 세상을 헤쳐나갈 묘안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2. 두 번째 산책로(다양한 수생식물) 연못이 많은 두 번째 산책로에는 연못의 수생식물인 파피루스와 영국인이 아마존강에서 처음 발견하여 영국여왕 이름을 따서 붙인 ‘빅토리아 아마존 연꽃’이 있다. 이 가시 연꽃은 동남아에서 제일 크다. 이 연꽃은 그 크기도 엄청나지만 실제 물속의 잎 뒷면이 아주 단단하여 5kg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연 잎의 형태가 우리나라 소반 형태로 단아한 형태미가 있다. 흰 꽃이 2~3일 핀 후에는 분홍색으로 변한다고 한다. ‘밤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밤에 꽃이 열리는 순간을 상상하니 생각만으로도 고혹적인 미에 취하는 것 같다.벨기에 공주가 신혼여행으로 식물원 방문 한 것을 기념하여 벨기에 국기 색상을 상징하는 칸나꽃과 아가티스 나무가 식재된 산책로도 있었다. 보고르 식물원을 돌다 보면 인



도네시아의 아픈 역사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방의 통치자를 위해 지어졌을 많은 정원이나 궁들은 아름다움은 있지만 큰 감흥이 없다. 원래의 야생의 수목들이 뿜어내는 거대한 초록빛의 에너지가 우리를 압도하기에 충분한 탓이다. 판다누스 나무 종들은 지상의 나무줄기에서 기둥뿌리가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공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나는 이곳 보르르 식물원에서 공기뿌리, 요정 수술 꽃(임의로 지었음)들을 보고 아마 아바타의 영화제작자가 이 보고르 식물원에서 많은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짐작 해 본다. 아바타 영화를 보면서 완전한 몰입을 가능하게 했던 생생하고 기묘한 자연의 묘사. 아열대의 화려하고도 아름다웠던 나무와 꽃과 덩굴들은 상상이 아니었다. 미지의 정글과 오색찬란한 식물들이 가득 했던 숲이 상상의 식물이라 여겼음에도 그 아름다운 자태에 나로 하여금 영화를 보는 내내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는데, 그 아름다운 요정 수술 꽃이 여기 있다니! 그 원시의 자연이 그대로 여기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3. 세 번째 산책로(용설란 류가 다양한 멕시코정원) 멕시코정원이 있는 산책로에는 라틴아메리카의 건조한 지역이 원산지인 용설란 류가 많다. 100년만에 꽃을 피우고 죽는다는 얼룩용설란, 데킬라의 재료로 사용되는 선인장, 사이잘 삼, 애니깁의 원료가 되는 선인장 등은 그 크기와 다양함에 특별함을 더했다. 노란 양초가 주렁주렁 달린 candle tree, 연인들이 건너면 헤어진다는 붉은색의 구름다리, 커피나무, 카카오 나무 등도 이 산책길에서 보았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288종의 야자나무가 있는 이 곳 산책로. 그들의 시들어진 잎 한줄기조차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졌다. 이 식물원은 지겨울 일이 전혀 없는 곳이다. 철철이 피고 지는 많은 것들, 올 때 마다 달라진다는 나무들, 찰나의 순간에 피었다가 지는 많은 꽃들 때문에 말이다.

4. 네 번째 산책로(바오밥나무) 보고르 궁전의 앞부분에 있는 네 번째 산책로에는 바오밥 나무가

다소 초라히 서 있다. 건기의 환경이 더 적합한 나무라 이쪽의 환경과 맞지 않아 형태에서도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었던 형태는 아니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알라가 세상을 창조한 후 너무 피곤해서 이 나무를 거꾸로 심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네 번째 산책로에서 우리는 연인들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커플 나무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뿌리가 여러 개의 벽을 이룰 만큼 큰 형태에서 든든함을 보았다. 그래서 사랑을 지켜 내리라는 믿음이 생긴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 팀원들은 걷기도 하고 미니버스를 나누어 타기도 하면서 이동했다. 다소 더운 날씨였지만 식물들을 관찰하기엔 좋았다. 놓칠 수 없는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다 보여주고 싶다. 이리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지고 난다.

사슴이 뛰어 노는 대통령궁

이스타나 보고르는 1745년 총독에 의해 세워졌고, 1865년 신교전주의의 기품 있는 양식으로 지어졌다. 사전예약이 필수이며 단체에게만 관람이 허용된 까닭에 쉽게 방문 할 수 없는 특별한 관람이었다. 친절한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동행했던 조은숙 선생님의 통역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대통령 궁은 램브란트 그림, 천 개의 상이 비치는 화려한 대형 거울, 웅장한 돔 천장의 공연홀 등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나는 단지 군림하는 자의 고독만을 보았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사슴도 사실은 사냥용으로 사용되



기 위함 이었고, 그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마지막은 결국 자연이었으므로 이 곳에 이 깊은 초록을 펼쳐 놓은 것이 아닐까 추측 해 본다. 우리는 대통령 궁의 계단에서 정상들의 사진 포즈를 흉내 내며 마지막 촬영을 마무리 했다. 작은 규모의 박제 전시장에서 대형고래의 뼈들과 온갖 곤충들의 채집표본을 보며 어린 시절 숙제 했던 기억들을 끄집어 내었다. 헤어짐이 아쉬워 보고르 식물원 옆의 노보텔 호텔에 들려 에어컨도 필요 없는 나무그늘 아래서 차 한잔을 마셨다. 노보텔 호텔은 현대식이 아닌 인도네시아 양식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는 추억을 되새기는 장소라고 했다. 호텔의 석상과 가지런한 나무들이 주변의 자연과 어울리게 설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날 하루의 단상을 나누며, 시를 나누며 피로를 풀었다. 인도네시아에 오신 많은 분들께 알려 드리고 싶다. 인도네시아 속으로 성큼 성큼 걸어 들어 오시라고 말이다. 주저하지 말고, 낯선 몇 분의 시간이 지나면, 문화탐방 팀이 경험으로 축적 된 길로 안내해 줄 것이다. 이 나라에서 타인으로 살고 계신 그 나뭇의 이유들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임을 떠올리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튼튼한 문화의 근간이 되어 온 한*인니 문화연구원과 교민사회의 선배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pilogue

초록은 하나의 풍경이다. 나는 성인이 된 이후 풍경화를 그려 본 적이 없지만, 화가의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색은 하나로 완성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색색의 겹들이 덧입혀 지면서 더 깊은 색감을 창조해 낸다고 한다. 나는 이 열대의 나라에서 이 초록의 창조성을 실험 하며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싶다. 내 명상의 시간에 리찌 나무아래에서 현자들과 대화하며, 빅토리아 연꽃이 있는 연못에서 밤의 향기에 취할 것이며 공중뿌리와 요정 수술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박진감 넘치는 상상으로 행복 할 것이다. 내 의식의 흐린 유리창을 초록으로 닦아 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초록의 기억은 소멸되지 않고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퇴적층이 되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임을 기쁘게 예감한다.





깊은 슬픔의 날들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4월의 하늘엔 뭉게구름 가득히 봄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은은한 라일락향이 코끝을 스치며 봄날의 정취는 한창이건만 진도여객선 세월호 침몰소식으로 온 국민은 깊고도 깊은 슬픔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벌써 여러 날이 흘렀는데도 모든 국민들의 시계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오전에서 멈춰 버린 것 같다. 언제 구조될지도 모른 채 기약도 없이 깊고도 차가운 바다 속에 갇힌 수많은 실종자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터질듯 답답하고 눈물이 흐른다. 생존자의 소식은 없고 매일같이 늘어나는 사망자의 숫자만 전하는 방송이 속절없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배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선장은 승객을 버리고 제일 먼저 탈출했고 구조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정부의 대응으로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는 커다란 피멍이 들고 말았다. 이런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민의 한사람인 우리 모두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말았다.

가슴이 먹먹하고 우울하기 그지없다. 이번 침몰사건의 희생자 대부분이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에 더욱 가슴이 아려온다.

학업이라는 경쟁사회에 몰려 쫓기며 살던 아이들이 인생에 대한 꿈을 아직 제대로 꾀워 보지도 못하고 저버린데 대한 아쉬움과 절망은 어른인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는다. 이 깊은 슬픔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만 같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똑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에...

기본이자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결과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한다. 이번 참사로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고통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말이다.

강한 인간이기에 사람의 정신은 쉽게 붕괴되지 않겠지만 이정도 충격이라면 국민모두가 집단 벤붕 상황을 겪기에 충분한 슬픔이다. 침몰한 세월호의

이름조차 아프게 다가온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만 이 슬픔을 잊을 수 있을까.

세월이 약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어느 세월에 이 깊은 슬픔을 세월 속에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인가.

TV 뉴스를 통해 생생히 전달되는 침몰호의 대응 체계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접하는 국민들의 정서는 심리적인 재난을 겪고 있다. 4/16일 이후로 TV를 켜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난다. 언제쯤이면 구조자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각 방송사의 뉴스를 보고 또 보지만 기다리던 소식은 아직도 들려오지 않는다.

세월호 침몰이 예견된 인재(人災)로 분석이 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이유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세월 재외동포로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며 한류로 떠오른 나의 조국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로 도덕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선사와 국가적 시스템의 현실을 보았다.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아직도 내실이 다져지지 않았던 고국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심리적 무력감에 힘이 빠지고 허탈해진다.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승객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또한 내 심장에 박혀 몇날 며칠을 가슴을 울리고 또 울린다. 자신의 안위보다 학생들을 먼저 구조했던 어린 여자승무원의 참다운 용기, 제자들을 먼저 구조하기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생님, 세월호에서 만나 사랑을 꽃피우며 세월호에서 끝을 맺은 어느 20대 연인의 애달픈 사연... 수학여행으로 들떠있던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던 풋풋하고 청순한 문자메시지들... 특히 엄마에게 나중에 말뭏할까봐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해놓는다는 아들의 문자는 그만 나에게 폭풍오열을 하게 만들었다.

삶이라는 바쁜 일상에 쫓기며 어찌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무심함을 깨우쳐 주는 것만 같았다. 이제부터라도 마음껏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살아야겠다

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깊은 슬픔을 통해 아픈 깨달음을 얻는다.

승객들을 배에 남겨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과 판단 때문에 구조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수 백 명의 고귀한 생명은 그렇게 무참히 어둡고 깊은 바다 속에 잠기고 말았다. 하물며 지켜보는 사람의 슬픔이 이정도인데 상대가 만일 피붙이라면 그 슬픔의 농도를 어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깊은 슬픔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만 하는 것일까.

정부차원에서 진심어린 사과와 사고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재난에 대비하는 총체적인 시스템과 빠른 소통체계를 정비해야만 할 것이다.

희생자가족에게는 심리적 상처 회복을 위해 당장 몸을 덮는 담요뿐 아니라 앞으로 상처를 보듬어 줄 심리적 담요가 절실히 필요한 까닭이다.

세월호의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무심했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스스로의 모습이 오랜 시간에 걸쳐 꽤 잘 다듬어놓은 조각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내면은 부실하기만 했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인 것을... 이 아름다운 봄날에 화사하게 피어있는 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인재가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어느 해 봄날의 울타리에서 더 이상은 슬프지 않는 삶이고 싶다. 부디 희생자 가족들이 이 깊고도 아픈 슬픔을 하루속히 가슴에 묻을 수 있기를...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고 새롭게 소생하는 삶이 되기를...

그들의 가슴에 이 찬란한 봄기운을 깊게 불어넣어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또 간절하다.



Museum Purna Bhakti Pertiwi 모국에 대한 봉사, 대통령 박물관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장)

대통령 박물관(Purna Bhakti Pertiwi)은 영부인 띠엔 수하르토의 주도하에 5년간에 걸친 공사 끝에 1993년 8월 23일, 띠엔 영부인의 70세 생일을 기념하면서 개관되었다. 19,7ha 땅 위에 25.095m² 로 건설된 이 박물관 Purine Bhakti Pertiwi는 산스크리트어로 ‘모국에 대한 완벽한 봉사’ 라는 의미인데 박물관 첫째 전시실인 투쟁관에 나무로 조각된 수하르토 대통령의 일생이 벽 전체에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어서 대통령 박물관이라고도 부른다. 2층에는 주로 대통령 가족사진들과 기록들이 있으며 박물관의 형태는 원뿔 모양인데 쌀로 된 콘 같은 모양으로 수하르토 대통령 가족이 신과 인도네시아 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수하르토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받은 선물과 훈장·메달, 정부 고관들이 모은 소장품이나 선물도 포함하여 13.000 여개가 넘는 총 수집물을 보관·전시한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투쟁과 봉사에 관한 역사적이고 값진 유물을 보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관광지로 수집물 속에 담겨 있는 역사와 가치, 외국과의 관계 등을 알림으로 국가와 수하르토 대통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박

물관 야외 초록 정원 속에 위치한 분수는 가장자리가 꽃과 나무들로 장식되어 가지각색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바의 요리를 상징한다. 이 박물관은 사랑스러운 정경만으로도 국내외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감탄어린 찬사를 받는다.

건물의 철학적인 개념

건물에 담긴 근본적인 의미는 인도네시아 전통문화 ‘수꾸란’ 명절에서 유래된, “감사·건강·영원” 을 상징하며,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박물관 건물의 디자인은 독창적인 주제성을 표현하기 위해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기념비적이고 주변과도 조화를 이룬다. 박물관 건물의 지붕은 뚝뚝(Tumpeng: 제레 시 원추형으로 쌓아 올린의 밥) 혹은 쌀 콘 (Rice cone) 혹은 외양 공연에서 나오는 산 모양인 구농안





(gunungan)과 비슷하며 이는 모든 자바인의 축제의 기본이다. 이 형태에 윤곽을 준 것은 사람들이 본래의 뜻을 쉽게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창조자인 전능한 신에게 우리가 완전한 평안에 도달할 수 있게 은총을 내려 달라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다. 9개의 작은 뚝뚝(Tumpeng)이 중앙에 있는 큰 뚝뚝을 둘러싸고, 각각의 지붕이 나시 뚝뚝을 나르는 전통 접시의 색깔로 되어 있다. 또 9개의 뚝뚝 외에 노란색의 4개의 고깔모양의 건물은 중심 건물(큰 뚝뚝과 9개의 뚝뚝)을 둘러싸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입구 건물에 투쟁관이 있다. 건물에서 중요한 요소인 색깔도 의미를 담고 있다. 흰색은 진실함과 순수함을, 노란색은 책임감과 고결함을, 빨간색은 그릇된 것에서 옳은 것을 지켜내는 용기를, 초록색은 안녕과 평화로움을, 상아색은 즐거움과 행복을 상징한다. 중앙 뚝뚝(원뿔) 지붕 위의 불꽃을 불의 혀라고 하는데 섬세한 장식물들은 진실과 미덕으로 악을 물리칠 때 나오는 초자연적인 힘과 신성함을 나타낸다. 입구에 환영을 표현하는 2개의 뻘뻘브라마(Panyembrama) 상이 관광객을 반길 듯 서 있다. 발리의 데와 마데 윈디아(Dewa Made Windia) 조각가가 만든 이 상이 껌(kepeng) 동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높이가 240cm이다. 발리에서는



손님을 반길 때 뻘뻘브라마 춤을 춘다. 투쟁 전시실은 2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1층은 수하르토 대통령이 태어났을 때부터 대통령이 될 때까지의 생애가 새겨져 있고, 2층은 다큐사진과 인도네시아 국기, 군복, 방탄조끼와 국빈과 친구, 등 수하르토 대통령이 지인들에게서 받은 선물과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다. 주요 건물은 서쪽에 있는 투쟁 전시실(Ruang Perjuangan)과 북쪽에 있는 전용 전시실(Ruang Khusus), 동쪽에 있는 아스따브라따 전시실(Ruang Asthabrata), 남쪽에 있는 도서관(40.000여권 소장) 등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전시품

완벽한 삶을 이루기 위한 끝없는 희망을 상징하는 짜까라 망길리난("Cakra Manggilinan")이 묘사되어 있는 동으로 된 박물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라마 땀박(Rama Tambak)이 투쟁관 중앙에서 우리를 반긴다. 라마 땀박을 먼저 현 위치에 갖다 놓고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Rama Tambak은 수령이 100살 이상 된 나무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서사시 라마야나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서사시는



도덕적 교훈이 풍부하며 예로부터 이미 당대 유명한 문인들, 건축가들의 작품세계에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조각에 새겨진 Alangka 왕의 탐욕을 무너뜨린 Rama의 용맹한 투쟁이야기는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동부자와 산림보호지역으로부터 가져 온 것으로 Agung Bunakar Partawijaya 조각팀이 약 18개월에 걸쳐 조각한 것으로 한참을 올려다 보아야한다. 라마 땀박을 통해 신에 대한 경외·충성심·상호부조의 협동정신·항쟁의욕 고취·투쟁 등 도덕적 교훈을 얻게 된다. 또한 라마 땀박은 완벽한 삶을 이루기 위한 끝없는 노력과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상징한다. 나무는 다른 생명체를 양육하고 지탱해 주는 우주 또는 Buana Agung(대세계)의 상



징이다. 부아나 아궁은 땅·물·불·바람·공기로 구성 되어 있다. 이는 사람의 몸속이나 다른 생명체 안 에도 있어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유지해 주며, 생 명의 신비와 소중함을 알게 해 준다. 주요 건물에 서는 캄보디아의 Hun Sen 총리와 말레이시아의 Mahathir Mohamad 총리가 준 은으로 된 시리 (sirih)를 담은 통, 네덜란드의 Lubbers 총리가 준 은으로 된 비둘기 상, 멕시코의 Carlos Salinas de Gortari 대통령이 준 호박 모양인 은 공예품, 카자흐스탄의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이 준 은 접시 세트 등 외교 관계를 맺는 동안 받은 선 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미국 예술가 Chihulydml 씨의 유리불기 작품이 있는데 이는 힐러리, 클린 턴에게서 받은 선물이다. 그 외에 닉슨에게 선물 받은 금으로 된 백악관 모형, 노태우 대통령에게 서 받은 도자기 등을 보면 이들의 활발한 외교 관 계를 알 수 있다. 수뒤жат모노(Sudwikatmono) 사업가가 선물로 준 많은 아이들이 있는 가족 나무 조각품은 발리의 이 끄뿏 모데른(I Ketur Modern) 조각가가 만들었고 발리에서 유명한 이 야기 Men Brayut에서 이름을 따다. 조각을 통해 서 이야기에 나오는 18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 어 머니를 보여주면서 구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을 말 한다. 조각에 ‘옛날에는 아이가 많을수록 운이 많 아진다’ 라고 적혀 있으나 현실은 ‘돈도 많이 들 고 문제도 많이 생긴다.’ 며 多産을 비판한다. 농 업사회에서 산업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알 수 있다. 동부 자바의 Tulungagung 지도자가 준 대 접 모양인 돌 공예품도 있다. 그 외에 중국에서 가 저운 옥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공주 침대는 송, 명

나라 시대 때 공주가 사용했던 침실과 같은 모델 이다. 옥으로 만들어진 배는 아홉마리의 용이 있 어 구룡선(船)이라 불려지는데 거북선과 비슷해 보여 더 멋있어 보인다.(길이;4.10m, 높이;2.5m, 무게;3.9ton) 발리에서 온 동전으로 만든 신상, 산 호 정원, 그림, 직물, 크리스털, 수정, 돌, 상아, 손 잡이가 금으로 된 3.88미터나 되는 키 큰 중국 도 자기 등, 수많은 수집품이 있다. 발리에서 온 랑랑 부아나(Lang lang Buana)는 100년 넘는 고무나 무 뿌리에 18명의 조각가가 16개월간 걸쳐서 조 각했는데 아홉 힌두 신들이 장식되어 있다. 길이 가 9.9미터나 되고 높이는 3.88m이다.



또 다른 3개의 콘은 특별 전시의 중심부인 원뿔 모 양의 Astra Brata 관과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다. 와양 꿀릿, 대통령 메달들, 훌륭한 금 세공품과 대 단한 리더십을 자랑하는 Mahabharata와 라마야나 이야기의 일화를 묘사한 전시품도 있다. 전용 전 시실은 특별히 수하르토 대통령이 받은 휘장을 보 관하여 전시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외에도 아랍과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등 외국에서 받은 휘장 도 많다. 그 외에 Yasser Arafat 지도자가 준 명 예의 검과 크로아티아의 Franjo Tudman 대통령이 준 크리스털 검도 전시되어 있다.



야외 정원에는 KRI HARIMAU 전투선은 전시되 어 있다. KRI HARIMAU호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감당한 전투선이다. 이 전투선의 주인공은 개발의 아버지 수하르토다. lambung 607이라 번 호가 붙여진 MTB(어뢰함) 타입의 전투함은 네 덜란드 식민지하의 서부 이리안자야에 대한 투쟁



의 역사를 보여준다. 1962년 Harimau호는 동종의 3척의 배와 함께 이리안자야에 대한 식민정착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네덜란드를 몰아내는 임무를 수행했다. 마침내 이리안자야는 1963년 독립을 하게 된다.

아스타브라타(Asthabrata) 전시실은 2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1층에는 지도자가 가져야할 덕망과 원칙인 8 개의 아스타브라타가, 2층에는 수하르토의 가족사진과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찍은 사진이 있다. 8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부미(땅)을 상징하는 위스누 (Wisnu)처럼 자선활동을 많이 하고 국민들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 ② 마루따(바람)을 상징하는 바유(Bayu)처럼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한다. ③ 사모드라(바다)를 상징하는 바루나(Baruna)처럼 마음이 넓고 국민들을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 ④ 짤드라(달)을 상징하는 라띠(Ratih)처럼 아름다운 소원과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⑤ 수르야(태양)을 상징하는 수르야(Surya)처럼 지도자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⑥ 아까사(하늘)을 상징하는 인드라 (Indra)처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자기 통제에 능숙해야 한다. ⑦ 다하나(불)을 상징하는 브라마 (Brahma)처럼 모든 것을 태우는 불처럼 지도자는 권한을 가지면서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 ⑧ 까르띠까(별)을 상징하는 이스마야(Ismaya)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박물관을 나오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아스타브라타 철학을 알았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몸서리치는 슬픔은 밀려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린 희생자들은 또 하나의 작은 심장으로 우리 사

회가 어떤 몸짓으로 날개 치며 날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박물관 건물의 철학적 개념과 전능한 신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전통적 가치관은 우리 사회에 다시 없는 의미의 향료가 되고 있다.

Jl. Taman Mini 1 Jakarta Timur

021-840-1687

개관: 화-일 9시 -5시

입장료: 어른 7000Rp, 어린이 5000Rp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251회 문화탐방

비의 도시, 식물원의 도시 보고르 (Bogor)

- 장 소 : 사슴이 뛰어노는 대통령 궁, Istana Bogor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박물관, Kebun Raya
- 일 시 : 2014년 4월 23일 (수) 07:00-16:00
연구원 (대사관 옆)에서 출발
-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코리아센터 404 호
- 연락처: 0817708253 (박선이 수석팀장)
021-527-3630
081584797879 (채인숙 부원장)
- E-Mail : ballonjoa@hanmail.net
lovekoin@hotmail.com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인도네시아 약용식물과 생물자원전쟁

백진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생물유전자원 저작권 시대 도래

일본 회사 시세이도는 인도네시아 자생식물인 자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51종의 화장품 원료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성분은 인도네시아의 소유일까요, 개발회사의 소유일까요? 특허가 인정되면 자무재배 농가들은 모두 개발회사에 로열티를 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됩니다.

인도의 님(neem) 나무는 전통적으로 구충제, 살충제,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하였는데 미국의 화학기업 그레이스가 님나무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생물농약을 만들어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인도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용법은 무시되고 연구실에서 흰 가운을 입고 개발해야만 특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북한산에서 채집된 수수꽃다리가 미스김 라일락으로 둔갑해 수입되고 있습니다. 제주산 구상나무는 미국과 유럽에서 값비싼 크리스마스트리로 인기리에 판매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급한 김에 종자회사를 다 팔아치우는 우를 범했습니다. 한때 토종 식물이었지만 많은 원예 식물이, 식탁에 오르는 고추, 딸기, 토마토 등 농산물이 하나같이 해외에 로열티로 주고 재배하는 것들입니다. 무지의 대가는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이 제3세계 생물자원을 착취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스위스 로슈사의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중국의 관목인 팔각의 열매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이 주원료입니다.

독일 바이엘은 케냐 루이루호수의 변종 박테리아로 만든 당뇨병 치료제 클루코베이의 특허를 냈습니다. 이득은 모두 개발사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제3세계 국가들이 생물자원에 눈을 뜨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지하자원처럼 생물자원도 소유권이 있고, 이를 통한 이익은 해당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것입니다. 1992년 생물다양성 국제협약(CBD)이 태동했고, 2010년 10차 CBD 총회 때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 지침인 나고야의정서가 긴 논란 끝에 합의되었습니다. 자원 이용국인 선진국들은 여전히 국익을 따지며 탐탁지 않은 눈치입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올해 10월 강원 평창에서 개최

정부와 업계에서는 나고야 의정서가 이르면 올해 10월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인도 멕시코 등 29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한국을 포함, 44개국은 비준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50개국이 서명하여 비준서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면 90일째 되는 날 발효됩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기업들은 생물 유전자원을 들여올 때 우선 원산지 국가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물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금전·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량이나 매출에 따른 이익을 로열티로 지급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생물자원의 70% 이상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아제약, SK케미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나고야의정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3500억~5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유전자원 물질을 사올 때만 돈을 내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국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행정 부담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는 개최국이라는 체면 때문에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며 한국은 생물자원 수입국으로써 굳이 한국이 나서서 나고야 의정서 비준을 서두르는 게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를 놓고 그 시행시기와 제도 보완에 대해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의정서의 시행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정부는 과거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환경부, 산림청, 미래부 등 한국의 많은 정부 부처와 연구소등에서 관련제도와 법령을 보완하고 있으며 국내의 야생동식물을 목록화하고 관련 전통지식을 발굴·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생물자원전쟁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생물유전자원의 경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 2006년부터 해외거점국(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코스타리카)과 전 세계 20여 개국과의 국제공동협력연구를 통해 해외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원 부국과의 긴밀한 관계구축을 통해 양국 간의 과학외교 증진은 물론 생물자원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인니 과학기술분야에 협력 증진 필요

인도네시아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

한 나고야 의정서에 이미 서명하였으며(2011) 인도네시아 열도의 모든 토종 품종을 목록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두 번째의 생물다양성 부국으로써 자연자원으로부터의 최대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정부는 생물탐사를 위한 예산 증액과 유전자원 보호 조치(전략)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니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부연구소, 대학,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약 3,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지역별, 종족별 고유 약용식물 및 전통지식 전국조사를 실시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연과학원(LIPI)은 매년 전국단위 생물다양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1년 발효된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전략지역과 각 주(Province) 마다 의무적으로 새로운 식물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식물원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생물다양성의 현지 내(외) 보전과 미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부 전통지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아울 베다, 우나니 등에 관한 내용을 영어, 일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40년간 진출 기업과 현지 교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경제, 문화 분야에 깊은 신뢰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에선 인도네시아가 개발도상국인 탓에 상대적으로 공동협력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니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과학기술 공동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서도 생물자원분야의 협력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물자원이 점차 무기화 되는 추세에서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가 갑의 위치를 차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이전,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첨단 연구 장비나 운영 시스템 전수 등의 전략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가기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현지 공관, 기업 및 교민 분들의 대중적 관심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26회 열린 강좌 후기



‘우리의 몸과 차 생활’, ‘자연과 채식’

채인숙(한*인니문화연구원부원장)

지난 3월 29일 토요일, 한*인니 문화연구원에서 ‘우리의 몸과 차 생활’ 그리고 ‘자연과 채식’이라는 주제로 제 26회 열린 강좌가 열렸다.

제1강: 우리의 몸과 차 생활

한국 경주 향리다원의 김경숙 원장은 한*인니 문화연구원에서 중국과 인도에서 기원된 차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강좌의 문을 열었다. 수천 가지가 넘는 차의 종류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차를 소개하고, 직접 차를 우리는 시범과 차를 보관하는 방법, 오래된 차를 다시 살리는 방법, 생활 안에서 차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식물 재료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차 생활에 관하여 실용적인 강의가 이루어졌다.

차의 효능을 실제 체험과 함께 풀이함으로써 일상에서 차를 마시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이로움과 차를 이용한 쉬운 요리법, 미백 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의 활용법이 함께 소개되었다. 차로 인해 가족의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번 강좌는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리라 짐작만 할 뿐 생활 안에서 다도를 즐기는 것을 힘겨워 했던 일반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차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실제 한국에서 가져 온 40여 종의 차를 전시하고, 보이차, 말차, 꽃잎차, 녹차 등을 직접 시음하면서 차의 종류가 나누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공부하였고, 회원들도 평소 차에 대하여 가졌던 의문

들을 적극적으로 질문하였다. 이 날 강좌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귀한 차의 세계를 일상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도운 유익한 강의였다.

제2강: 자연과 채식

무오신채 약선요리 전문가인 이은실 강사는 자신의 병을 채식으로 치유해 나간 경험을 나누면서, 채식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우리의 몸에 쌓여있는 독들이 길거리의 매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몸과 정신을 돌보는 채식은 출발한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향기와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면서 여성 자신의 몸을 돌보거나 정신을 다스리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무오신채는 양파, 파, 마늘, 달래, 부추 등 다

섯 가지의 향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요리법이다. 기본적으로 5가지 종류 이상의 잡곡을 사용하여 밥을 짓고 계절 채소를 이용한 신선한 재료만으로 요리를 한다. 그리고 화공약품을 쓰지 않은 식기에 음식을 올린다. 채식은 우리의 혈액을 깨끗하고 충만하게 하며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든다. 가장 가치적인 효과는 눈이 맑아진다는 것이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정신이 즐거워지고 보다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강좌에 참여한 회원들을 직접 집으로 초대하여 무오신채 채식 요리법을 이용한 식단으로 저녁 식사를 즐기는 행복한 시간도 함께 하였다. 인도네시아 생활에서 자칫 식생활의 중요성을 잊고 살기 쉬운 우리들에게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정화시키는 채식의 세계는 참으로 풍부하고 다양하였다. 채식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에 쌓여있던 독소를 제거하고 보다 활기찬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식생활 혁명을 소개한 좋은 시간이었다.

후원: 서희건설(순문식 해외본부장)





재 산 세(PBB)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Jakarta 특별주의 2014년도 재산세(Pajak Bumi dan Bangunan/PBB)가 대폭 인상되었다. 700% 넘게 인상된 지역도 있다. 주거지 상업지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올랐다. 재산세 폭등은 2012년 3/4분기에 취임한 주지사가 2013년 1년 동안 심각한 교통 체증 현상과 상습 홍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세수 확보에 만 진력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될 만한 사항이지만, 법리상으로 보면, 오류가 없으며, 오래 동안 과세 기준지가 이하로 과세해온 재산세를 시가에 가깝게 조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불평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재산세 세율은 현 주지사 취임 후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 주지사 시절 2011년도에 주의회에서 조례로 결정된 사항이다. 자카르타 남구의 3층 짜리 한 주상복합 점포(Ruko)의 경우를 보면 2013년도 과세기준 지가는 M2

당 Rp.3,750,000.-이었는데 2104년도 과세기준 지가는 Rp.27,000,000.-으로 시가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조정되어 무려 700% 이상 인상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폭탄이 투하되었다. 2104년도 과세기준 지가의 시가화는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임대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이후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1. 재산세 근거 법규

- 1.1. 토지 및 건물세에 관한 1985년 법률 제12호 및 1994년 법률 제12호
- 1.2. 토지 및 자카르타 특별주 조례 2011년 제 16호

2. 재산세 과세 대상(과세 목적물)

* 재산세는 대인세가 아니고 대물세이다.

2.1. 토지는 지표 및 지표 아래 부분 지하까지 과세 목적물이며, 건물은 지상, 지하, 수상, 수중 혹은 해저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술적인 고정물을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되는 시설은 건물로 간주된다.

2.1.1. 호텔 내 도로, 공장 내 도로 등 건물과 붙어 있는 도로

2.1.2. 유료 도로(Jalan Tol)

2.1.3. 수영장

2.1.4. M2당 Rp.250,000.- 이상 고급 담장은 울타리

2.1.5. 축구장, 골프장, 테니스코트 등 옥외 혹은 옥내 운동 시설

2.1.6. 해상 혹은 육상 조선소, 선착장

2.1.7. M2 당 Rp.200,000.- 이상 정원

2.1.8. 저수조, 저유소, 가스저장소, 수도관, 기름 파이프, 가스 파이프

2.1.9. 전기, 전화, 안테나 용도로 본 건물의 높이보다 더 높은 탑

2.1.10. 다층 건물

2.1.11. 아파트

2.2. 모든 과세 목적물은 등급이 있으며 등급은 재무부장관령으로 정한다.

과세목적물에 대한 등급이 잘 못 매겨졌다 고 생각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산세 과세 목적물이 아닌 토지 및 건물(*재산세 안 내도 되는 토지 및 건물)

3.1.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혹은 건물

3.2. 종교 분야, 사회 분야, 보건 분야, 교육 분야, 국민 문화 분야 등 비영리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 혹은 건물(사용자의 정관에 비영리 목적 공익 단체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3.3. 묘지, 선사시대 유적 혹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혹은 건물

3.4. 거주 혹은 상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보호 문화재

3.5. 녹지대, 보호림, 자연보호 구역, 관광림, 국립공원, 농촌의 농경지가 아닌 가축용 목초지, 아직 아무런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국가 소유 토지

3.6. 호혜협약에 근거한 타국의 외교 및 영사 시설

3.7. 재무부장관령으로 정한 국제기관 대표부의 시설

4. NJOP(과세 기준지가)

4.1. 직역하면 과세목적물 매가이다. 즉, 과세목적물인 토지 혹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받을 가격을 뜻하며, 신축물인 경우에는 건설비를 NJOP로 할 수 있다.

4.2. 면세 NJOP : 납세의무자 1인 당 Rp.15,000,000.-

4.3. NJOP는 매년 조정한다.

5. 재산세 납세의무자

5.1.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 점유자, 사용자, 권리행사자, 혹은 재산세 과세목적물로부터 이익을 얻는 개인 혹은 단체이다.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재산세 과세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권리를 행사하고 있거나, 이익을 얻고 있으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5.2.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불명한 경우에는 주지사는 직권으로 상술한 “5.1.” 항에 근거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본인 납세의무자가 아

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산세 재산세납세 의무자 지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인정 여부는 접수일로부터 1(한)달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한)달 이내에 미처리 시는 이의 제기는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6. 재산세 세율

- 6.1. NJOP 100억 Rupiah 이상 토지 및/혹은 건물 : 0.3%
 - 6.2. NJOP 20억 Rupiah - 100억 Rupiah 미만 토지 및/혹은 건물 : 0.2%
 - 6.3. NJOP 2억 Rupiah - 20억 Rupiah 미만 토지 및/혹은 건물 : 0.1%
 - 6.4. NJOP 2억 Ruiah 미만 토지 및/혹은 건물 : 0.01%
- * 재산세 세율이 NJOP에 따라 30배(0.3% : 0.01%)나 차이가 난다.

7. 재산세 납부 자동 만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는 자동 만기된다(즉시 납부해야 한다),

- 7.1. 납세의무자가 영구 출국하거나 영구 출국 의지가 있는 경우
- 7.2. 과세 목적물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 7.3. 납세의무자가 사업체를 해산, 청산, 합병, 통합, 분리하는 경우
- 7.4. 정부에 의해 폐업당하는 경우
- 7.5. 과세목적물이 제삼자에 의해 압류되거나 파산 징후가 있는 경우

8. 재산세 계산 “예”

8.1. “예 1”

- 토지 : 면적 200 m², 가격 Rp.500,000.-/m²
- 건물면적 : 면적 100 m², 가격 Rp.900,000.-/m²

+ 재산세 계산

- 토지가격 : 200 m² x Rp.500,000.- = Rp.100,000,000.-
- 건물가격 : 100 m² x Rp.900,000.- = Rp.90,000,000.-
- 토지 및 건물 과세기준가 = Rp.190,000,000.-
- 면세 기준가 = Rp.15,000,000.-(-)
- 토지 및 건물 재산세 과세가 = Rp.175,000,000.-
- 재산세 세율 = 0.01%
- 재산세 : 0,01% x Rp.175,000,000.- = Rp.17,500.-

8.2. “예 2”

- 토지 500 m², 가격 Rp.1,000,000.-/m²
- 건물 350 m², 가격 Rp.1,500,000.-/m²
- 고급 울타리 150 m x 2 m, 가격 Rp.250,000.-/m²



+ 재산세 계산

- 토지가격 : 500 m² x Rp.1,000,000.- = Rp.500,000,000.-
- 건물가격 : 350 m² x Rp.1,500,000.- = Rp.525,000,000.-
- 고급 울타리 : 150m x 2m x Rp.250,000.- = Rp.75,000,000.-
- 토지 및 건물 과세기준가 = Rp.1,100,000,000.-
- 면세 기준가 = Rp.15,000,000.- (-)
- 토지 및 건물 재산세 과세가 = Rp.1,085,000,000.-
- 재산세 세율 = 0.1%
- 재산세 : 0.1% x Rp.1,085,000,000.- = Rp.1,085,000.-

8.3. “예 3”

- 토지 1,000 m², 가격 Rp.4,000,000.-/m²
- 건물 700 m², 가격 Rp.2,000,000.-/m²
- 고급 울타리 300 m x 2 m, 가격 Rp.350,000.-/m²
- 고급 정원 200 m², 가격 Rp.250,000.-/m²

+ 재산세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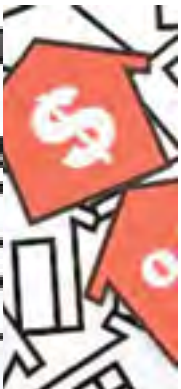
- 토지가격 : 1,000 m² x Rp.4,000,000.- = Rp.4,000,000,000.-
- 건물가격 : 700 m² x Rp.2,000,000.- = Rp.1,400,000,000.-
- 고급 울타리 : 300m x 2m x Rp.350,000.- = Rp.210,000,000.-
- 고급 정원 : 200 m² x Rp.250,000.- = Rp.50,000,000.-
- 토지 및 건물 과세기준가 = Rp.5,660,000,000.-
- 면세 기준가 = Rp.15,000,000.- (-)
- 토지 및 건물 재산세 과세가 = Rp.5,645,000,000.-
- 재산세 세율 = 0.2%
- 재산세 : 0.2% x Rp.5,645,000,000.- = Rp.11,290,000.-

8.4. “예 4”

- 토지 1,500 m², 가격 Rp.6,000,000.-/m²
- 건물 800 m², 가격 Rp.2,000,000.-/m²
- 고급 울타리 300 m x 2 m, 가격 Rp.350,000.-/m²
- 고급 정원 200 m², 가격 Rp.250,000.-/m²

+ 재산세 계산

- 토지가격 : 1,500 m² x Rp.6,000,000.- = Rp.9,000,000,000.-
- 건물가격 : 800 m² x Rp.2,000,000.- = Rp.1,600,000,000.-
- 고급 울타리 : 300m x 2m x Rp.350,000.- = Rp.210,000,000.-
- 토지 및 건물 과세기준가 = Rp.10,860,000,000.-
- 면세 기준가 = Rp.15,000,000.- (-)
- 토지 및 건물 재산세 과세가 = Rp.10,845,000,000.-
- 재산세 세율 = 0.3%
- 재산세 : 0.3% x Rp.10,845,000,000.- = Rp.32,535,000.-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드라마를 번역하다 보면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로 접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비록 사용하는 문자는 다르지만 때에 따라 정말 절묘하게 한국어 표현과 맞닿을 때가 있는데도 즐겁고 좋은 감 정표현도 있지만 살다 보면 찝찝하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때도 많습니다.

윤수 좋은 날 또는 재수 없는 날 우리는 기분이 찝찝하다 또는 더럽다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 나 자카르타 교통체증을 겪다 보면 정말 년덜머리가 난다 라고 표현하고 심을 때는 있지 않으신가요? 이럴때 **Muak** 또는 **Jijik** 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이 어떨까 합니다.

20년 넘게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의 자식을 속아 서 길렀다고 생각하는 들임이 엄마는 남편에게 다 음과 같이 말합니다.

Aku muak dan jijik padamu. Sehari pun Aku tak tahan menjadi istrimu.

이제 당신이라면 지겹고 년덜머리가 나요. 단 하 루라도 당신 아내로 살 수 없어요.

Muak /mu.ak/ (Ajektiva/Kata Sifat) 1 sudah jemu (karena sudah sering kali makan, merasakan dsb.) **2** merasa jijik sampai hendak muntah **3** merasa bosan atau jijik mendengar atau melihat

실증이란 **Jijik**과 같이 어떠한 사물이나 형태 또는 상황에 신물이 나는 년덜머리가 나는, (이미 많이

먹어서) 지긋 지긋한(**Bosan** 보다는 강한 지겨움 을 나타냄) 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Contoh:

1) Aku muak harus makan tahu goreng setiap hari.

매일 매일 두부 튀김을 먹는일에 신물이 난다.

2) Mendengar keluhanmu tentang segala hal membuatku muak.

모든일에 당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당신은 나를 년 덜머리(지긋 지긋) 나게 한다.

Jijik /ji.jik/ (Ajektiva/Kata Sifat) 1 tidak suka melihat (mual dsb) krn kotor, keji, dsb.

2 (dipakai sbg) kata seru untuk menyatakan rasa tidak suka (krn keji, kotor, dsb.)

(주로 어떠한 상황이) 소름끼치는, 끔찍한, 징그러운, 혐오하는, (지긋 지긋해서) 넉덜머리가 나는 등의 감정적 표현을 나타냅니다.

Contoh:

1) **Saya jijik melihat ular besar itu.**

큰 뱀을 보고 소름끼쳤다.

2) **Jijik! makanan itu sudah dihinggapinya banyak lalat.**

징그러(*혐오스러움을 나타냄)! 파리가 수북히 앉아 있는 저 음식.

Cemar /ce.mar/ (Ajektiva/Kata Sifat) 1 kotor; ternoda/2 keji; cabul; mesum

3 buruk (tt nama baik); tercela

혐오스럽고 더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지만 어떠한 유형의 물체 또는 환경이 오염되어 더럽고 혐오스러운 상태 또는 오해를 받아 오명을 쓴 경우를 나타냅니다.

Contoh:

1) **Udara menjadi cemar karena asap yang disebabkan oleh kebakaran lahan hutan berhektar-hektar.**

수십 헥타르에 발생한 화재로 발생한 연기로 공기가 오염되었다.

2) **Cemar citra hakim itu karena perbuatan yang dilakukan oleh salah satu anggota kerabatnya.** 일가 친척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판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명예가 훼손되었다/ 오명을 얻다)

Kotor /ko.tor/ (Ajektiva/Kata Sifat) / Jorok / jo.rok/ (Ajektiva/Kata Sifat)

1 tidak bersih; kena noda

2 banyak sampahnya (barang bekas, barang busuk, dsb); jorok; menjijikkan

3 melanggar kesusilaan; tidak patut; keji

4 tidak mengikuti aturan; tidak jujur

Kotor 가장 자주 종종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청소 상태가 불량하여 더럽

거나 눈에 보여지는 형태의 더러움, 음식이나 의복의 상태가 더러울 경우 및 (비열한)공정치 못한 판결이나 상태 또는 험한 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Jorok 은 **Kotor** 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나 사용되는 어감이 조금 더 강한 더러움(불결함)을 표현합니다. 간혹 성적 취향이 일반적이지 않은 변태(**Cabul**)를 표현할때도 사용됩니다.

Contoh: **Kotor**

1) **Ibu mencuci pakaian kotor seluruh anggota keluarga.**

어머니는 온 가족의 더러운 옷을 세탁한다.

2) **Selokan-selokan yang kotor akan mendatangkan penyakit.**

더러운 하수구는 질병을 유발한다.

3) **Anak-anak yang suka mengatakan kata-kata kotor harus selalu diingatkan untuk tidak mengucapkan kata-kata itu lagi.**

험한 단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다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

4) **Untuk apa menang kalau bertanding dengan kotor?**

공정치 못한 경기에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중량이나 세금 내용물의 총 금액, 중량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berat, isi, gaji, dsb/

Gaji kotornya bahkan tidak mencapai Upah Minimum Regional.

총 급여가 지역 최저 임금에 못 미친다.

Contoh : **Jorok**

1) **Dia jorok karena suka membuang ingus sembarangan.**

그는 계속 아무곳에서나 코를 풀어 더럽다.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장사 잘하는 집

혼다 마사카츠 저/김수은 역 | 타임비즈

자영업 지옥에서 살아 남는 법

일본에서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컨설팅하고 내린 결론을 책에 담았다. 그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 장사 잘하는 집은 사람의 힘이 강하다는 것.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한국. 현실이 어려울수록 창업을 위해서는 준비를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쉽고 빠르게 개선할 수 있지만, 파는 사람으로서는 간파하기 어려운 '진짜 고객이 원하는 핵심'을 직원에게 가르치라고 조언한다.

부모로 산다는 것

제니퍼 시니어 저/이경식 역 | 알에이치코리아(RHK)

부모 됨의 사회적, 철학적 의미



어떤 생물에거나 후세를 잇는다는 건 중요하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불행한 경우를 종종 본다. 이 책은 현대 가족이 처한 역설적인 상황을 분석한다. 단순히 부모가 느낀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한 게 아니라 심리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등 여러 학문적인 관점에서 부모가 됨을 조명했다.

스페인 은 건축이다

김희곤 저 | 오브제



열정과 낭만의 스페인 건축문화 답사기

프리메라리가, 투우, 토마토, 무적 함대 등.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게 많지만, 이 책은 건축을 주제로 스페인을 소개한다. 스페인

에서 복원 및 재생건축을 공부한 저자는 스페인 건축이야말로 건축의 본질을 알려 줬다고 고백한다. 건축을 다룬 책답게, 다양한 사진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실제로 답사하기에 좋게 지역별로 각 건축을 소개해서 여행서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

대기업과 싸워서 이기는 작은 회사 사장의 전략

이노우에 다쓰야 저/최려진 역 | 마일스톤

통련하기 위해 사장이 절대 해선 안 되는 것들



창업하고도 10년 동안 전혀 수익을 올리지 못했던 이노우에 다쓰야. 하지만 결국 업계의 유명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창업 초기에 그는 수없이 좌절했다.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해도 수익은 나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도서관에서 마케팅 책을 읽어 나갔다. 적은 비용과 적은 인원으로서는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현실은 다르다. 작은 회사로도 충분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럼에도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사장들이 진짜 경영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사장이 해서는 안 될 착각,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등 피해야 할 사안에 관해 다룬다.

라스트 런어웨이

트레이시 슈발리에 저/이나경 역
| arte

혼란과 갈등이 뒤섞인 삶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감동!



『진주 귀고리 소녀』로 명성을 얻은 트레이시 슈발리에의 신작. 그녀가 모국인 미국의 역사를 소재로 쓰기로는 첫 작품이다. 소설은 1850년대 웨이커 교도들과 도망 노예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작가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4년간이나 19세기 미국 오하이오의 시대상을 연구했다고 한다. 치밀한 준비 끝에 나온 세계적인 작가의 신작이니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20대가 부러워하는 중년의 몸만들기

김원곤 저 | 덴스토리
(DEN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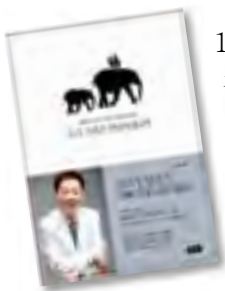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중년들을 위한 운동 책

건강한 중년, 근육질 중년을 꿈꾸는 중년을 위한 운동 책이다. 중년의 운동법이 청춘의 운동법과 같을 수는 없다. 저자인 김원곤 교수는 중년 몸짱이면서도 서울대학병원 교수다.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한데 어우러졌다는 점에서 저자의 제안에 신뢰가 간다. 그는 운동도 일주일에 2~3시간만 하면 충분하며, 복잡한 칼로리 계산 같은 것은 잊으라고 말한다. 술도 과음만 아니면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우리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이재성 저 | 소라주

할아버지 고혈압, 남편의 코골이, 아내의 알레르기 비염, 아이의 아토피...



10년 넘게 TV 건강박사로 이름을 떨친 이재성 한의사가 쓴 건강 실용서. <라디오 동의보감>에 오래 출연했던 그는 2005년 MBC 방송연기대상 라디오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쁘다.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길 여력도 없다. 그래서 저자는 가족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만 가족 건강을 챙기기에는 너무 바쁜 주부를 위해 온가족이 쉽게 볼 수 있게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온가족의 행복을 위한 질병 상식과 치료법, 건강 습관에 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다는 점이다. 아토피와 같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겪는 질병으로부터 고혈압, 중풍, 노인성 난청 등 노년에 겪게 되는 병까지 두루 다뤘다.

모멸감

김찬호 저 | 문학과지성사



악플, 왕따, 감정노동, 갑을관계...모멸 권하는 한국 사회를 해부한다!

모멸감이란 나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거나 격하될 때 갖는 괴로운 감정이다. 이 책이 특이한 점이라면 인간이 느끼는 모멸감을 보편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한국인의 일상이라는 특정한 시대적 공간적 배경과 연결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인은 언제 모멸감을 느낄까. 저자의 논의를 따르다 보면 현재 한국 사회를 억누르는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 사회가 나갈 방향은 어디일지 짐작할 수 있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 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감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월 인도네시아 전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 인도네시아 이재민을 돕기위한 구호성금 및 물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한인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금과 성금으로 구입한 모포 3만장, 마스크 20만개 및 물품(신발, 라면, 샴푸)은 4월25일 인도네시아적십자사(총재 유습갈라)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한인사회의 면모를 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4월25일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수재의연금 모금 현황> 수재의연금 기탁자 (2014.05.05 현재)

번호	기업 · 단체명	대표자	금액
			RP
1	KORINDO GROUP	승은호	100,000,000
2	KMK GROUP	송창근	100,000,000
3	재인니한국봉제협의회(KOGA)	배도운	50,000,000
4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차상만	50,000,000
5	PT. DAYUP INDONESIA	석웅치	30,000,000
6	PT. DOOSAN CIPTA BUSANA	배도운	20,000,000
7	PT. MITRA BUANA	신동수	20,000,000
8	PT. HANINDO EXPRESS UTAMA	신기엽	10,000,000
9	PT. GAYA INDAH KHARISMA	김영욱	10,000,000
10	PT. STAR CAMTEX	김주철	10,000,000
11	PT. CIPTA ORION METAL	김준규	10,000,000
12	PT. BUSANA PRIMA GLOBAL	박재한	10,000,000
13	PT. KYUNGSEUNG TRADING INDONESIA	배응식	10,000,000
14	PT. ING INTERNATIONAL	엄정호	10,000,000
15	PT. SUNG BO JAYA	이진수	10,000,000
16	PT. VICTOR JAYA RAYA	이호덕	10,000,000
17	PT. BANK WOORI INDONESIA	최상학	10,000,000
18	PT. INWHA INDONESIA	황의상	10,000,000
19	PT. KIPCO CO.LTD	김영만	10,000,000
20	한인회 여성 회장	박미례	10,000,000
21	PAKUWON GROUP	이윤상	10,000,000
22	소망교회	김종성	10,000,000
23	기독실업인자카르타지회	한상재	15,000,000
24	PT. SAMICK INDONESIA	권희정	10,000,000
25	재인도네시아모발협의회	김영을	10,000,000
26	족자카르타한인회	박병엽	10,000,000
27	동네사람들		5,000,000
28	PT. DONGSUNG JAKARTA	김재유	5,000,000
29	PT. INKO PRIMA UTAMA JAYA	장주현	1,000,000
30	PT. BIG STAR	최광수	10,000,000
31	PT. DONG JUNG INDONESIA	조규철	10,000,000
32	PT. ZIMMOAH MARINE TRANS	이지현	10,000,000
33	PT. ETRADING SECURITIES	김희년	10,000,000
34	PT. ZONE STAR INDONESIA	김준명	5,000,000

35	KOFA	신 만 기	31,000,000
36	PT. SAMSUNG PRINT & PACK INDONESIA	김 광 규	10,000,000
37	PT. UNICON INDOMESIN	김 승 정	5,000,000
총 금액			Rp667,000,000

물 품

번호	기업.단체명	대표자	품 명	수량
1	신발협의회	신 만 기	신 발	457켤레
2	Seah Indonesia Association	엄 정 호	라 면	1000박스
3	PT. DONGSUNG JAKARTA	김 재 유	삼 푸 + 린 스	10박스

2014년 한인회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접수순)

(2014년 5월 5일)

번호	성 명	납입연도	금 액	
			IDR	USD
1	이 지 현	2014	6,000,000	
2	김 주 철	2014	3,000,000	
3	이 종 후	2014	1,000,000	
4	백 승 래	2014		200
5	손 용	2014	300,000	
6	임 성 용	2014	300,000	
7	이 승 민	2014	300,000	
8	김 재 민	2014	300,000	
9	신 기 엽	2014	300,000	
10	강 희 중	2014	300,000	
11	강 덕 재	2014	3,300,000	
12	김 원 모	2014	300,000	
13	권 영 동	2014	300,000	
14	김 일 태	2014	300,000	
15	이 소 왕	2014	300,000	
16	이 완 주	2014	300,000	
17	이 효 옥	2014	300,000	
18	정 재 호	2014	300,000	
19	최 건 호	2014	300,000	
20	최 문 중	2014	300,000	
21	홍 석 진	2014	300,000	
22	홍 훈 섭	2014	300,000	
23	김 섭	2014	300,000	
24	김 중 주	2014	300,000	
25	오 세 윤	2014	300,000	
26	김 현 동	2014	300,000	
27	백 승 명	2014	300,000	
28	윤 석 환	2014	300,000	
29	이 기 열	2014	300,000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30	이정호	2014	300,000	
31	최호영	2014	300,000	
32	황재규	2014	300,000	
33	한기환	2014	300,000	
34	배희윤	2014	300,000	
35	이봉규	2014	300,000	
36	이원만	2014	300,000	
37	박정호	2014	300,000	
38	양영연	2014	300,000	
39	배영태	2014	300,000	
40	최철우	2014	300,000	
41	김영수	2014	300,000	
42	이일하	2014	300,000	
43	이수진	2014	300,000	
44	장방식	2014	300,000	
45	조규철	2014	300,000	
46	최양기	2014	300,000	
47	엄종한	2014	300,000	
48	no name	2014	300,000	
49	오세명	2014	300,000	
50	김세형	2014	300,000	
51	서울메디칼	2014	300,000	
52	김도상	2014	300,000	
5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500,000	
54	김영울	2014	300,000	
55	김창근	2014	300,000	
56	김대근	2014	300,000	
57	조용재	2014	300,000	
총 금액			Rp30,100,000	\$200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 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보내실 곳>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KEBI HANA BANK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땀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0291 598593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널스쿨	08129712306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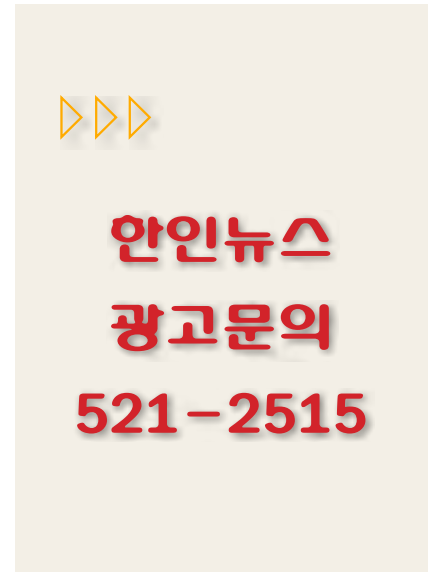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당)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MATAARI
TRAVEL & TOURS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ijay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ijay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챔피온



환전
송금업무
높은환율

Tel: (021) 4585 1158
HP: 0815 114 14 119
주소: Ruko Inkopal Block C No.75
Kelapa Gading

佳肴 최상의 재료와 지명화면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셔드립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308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oori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	----------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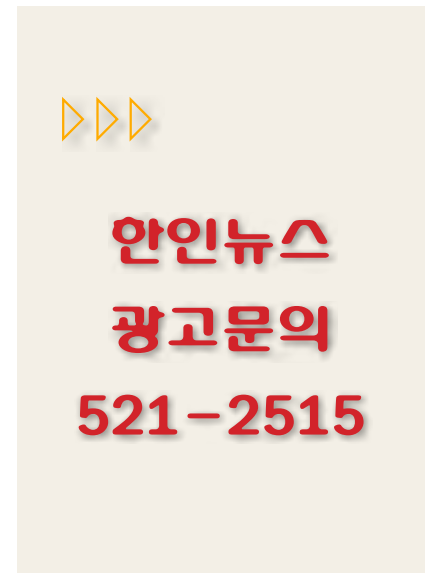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272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짜)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뽕독인다)	315 1033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꿀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꿀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꿀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가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꿀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안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안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왁	726 1924
청마루(꿀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꿀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문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트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빔)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뱅크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집

고향집 하숙	83701492/081511597510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썬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뽀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강남하숙	725 3360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22 068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뽀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리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항공

대한항공(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생활정보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퓨터	0821-2222-6000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0816-873-176
HP.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www.palacejava.com



백년고객

정성을 담아 사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로,
정신 없는 일상 속, 숨이 트이는 편안한 공간으로
늘면 할 일은 모습으로 제자리에서
Java Palace Hotel을 찾아 주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백년고객으로 오소서

百年高客



hotelfacilities



Borobudur
Grand Ballroom



Rama
Ballroom I



Shinta
Ballroom II



Meeting Room
1-V



Fitness Club



Driving Range



Garden
Brasserie



Coffee Shop



Business
Center



Pool Bar



PUB



Swimming
Pool



Restaurant



Sauna & Spa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 : info@palace.co.id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두 번 사랑함. KIDECO
우리의 열정과 투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말레이시아 Pasa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한을 타사로 공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